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니르바나를 향해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28일)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청규 · 화목 · 지혜’…성파 종정예하 첫 교시 큰 ‘울림’

조계종, 3월 24일 통도사서 추대 기자간담회

양산 통도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항상 청규 규율을 따르고 화목하며 지혜로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라. 〈常要淸規(상요청규) 必順和睦(必順和睦) 普利群生(보리군생)〉”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성파 대종사〈사진〉의 첫 일성이 교시에 담겼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3월 26일부터 제15대 종정예하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시를 내리고, 수행자들에게는 청규를, 뭇 대중들에게는 지혜와 화목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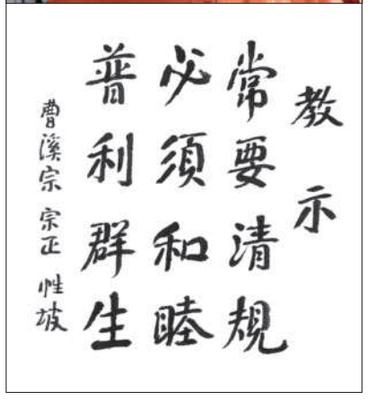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24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중봉성파 대종사의 제15대 종정추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지난해 12월 종정으로 추대된 이후, 일체 외부활동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기자들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는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시종일관 소탈함으로 대중들을 맞았다. 시작부터 “불교 집안에서는 종정이라도 일개 산승일 뿐이지 국가의 통치자도, 민족의 지도자도 아닌데 많이들 와주셨다”며 “이왕 오셨으니 차나 한잔하시고 다담(茶談)이나 나누고 가시라”는 말로 미소를 자아냈다.

첫 교시가 내려진 만큼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성파 대종사는 “절집안은 모두 성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인연도 다른 사람들이 각각 모여 출가해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도록 구성된 특별한 사회”라며 “청규는 특수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이자 법이기에 이를 항상 요긴하게 잘 지켜내고 지혜로서 나누고 화합하고 화목해야 하니 이것이 일종의 상구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규를 토대로 지혜와 화목을 갖춰 우리 본연의 역할이 되는 하화중생,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3월 26일부터 공식임기 시작돼
질의응답에 소탈한 답변 이어져
“종정예경실, 따로 두진 않을 것”





조계종 종정예하에 대한 의전체계인 종정예경실을 별도로 두지 않겠다는 파격 선언도 했다.

성파 대종사는 “다른 곳에 거처하고 있으면 몰라도 통도사에 주석하니 본사 주지(현문 스님)가 예경실장 역할을 하면 되고 또한 본사 대중 스님들이 모두 식구이니 사서와 다를 바 없다”며 “종정예경실을 별도로 두는 것 자체가 절집 안에서는 옥상옥이며 되레 종단과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굳이 별도로 꾸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총무원은 각자 소임대로 종단을 잘 운영하니 종정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순리를 잘 따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사의 ‘평상심’ 가르침 지켜와
“평상심, 누구나 佛性있다는 것”
조계종, 정신적 구심점 지켜내야

한평생 은사 월하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온 바도 전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2002년 월하 스님으로부터 환성지안 문하의 13세손으로 인가받았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은사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함이 없이 전하고 말 없는 말을 전함이 없이 전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꼭 물건처럼, 문자처럼 보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라며 “이는 곧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도라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상식이 곧 법이니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평생 이를 잘 지켜왔다”고 말했다.

대종사는 시종일관 ‘산승’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소참법문을 이어가며 때론 웃음을, 때론 감동을 선사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가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범부가 부처가 되니, 평상심이 곧 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 역시 종정이라고는 하지만 ‘평상심’이 도임을 아는 일개 산승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이슈인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생겨나는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불교계 어른으로서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갈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중들의 고통,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 “아상과 인상을 지양하고 공덕림(功德林)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종사는 “공덕의 숲은 복전이다. 숲이 우거지면 곤충과 새, 뭇짐승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염두에 둬 반목과 질시를 지양하고 공덕림을 가꾼다면 나라도 백성도 편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남다른 예술 활동으로 알려진 만큼 종정추대 이후 이를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파 대종사는 “나는 예술가라기 보다 혹글, 혹서, 혹화, 혹선을 했다. 간혹 글쓰고 간혹 그림을 그리고 간혹 참선을 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승려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해온 일들이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도 역시 종정 소임과는 무관한 일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제게 종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묻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태풍이 불면 태풍 단속을 하고 가뭄이 심하면 화재를 예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애정도 드러냈다. 성파 대종사는 특히 조계종이 전통을 잘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종사는 “한국불교는 한국정신문화의 주축이 되어왔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으며 달라져서도 안된다”며 “전통이 굳건하다는 것은 곧 바퀴가 튼튼하다는 것이며, 바퀴가 튼튼하면 어떤 길을 가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중심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 세상 평화를 발원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상월결사 사부대중이 다시 길을 나섰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3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상월결사 대흥사 평화순례’를 봉행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이번 순례에는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불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순례에 동참한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은 대흥사에 도착해 부처님 전에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헌화를 했다. 〈관련 기사 4면〉 해남 대흥사=노덕현 기자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무원 스님

3월 20일 종의회 본회의서 인준
종정예하 도용스님, 임명장 수여
2021년도 천태종 결산안 가결도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무원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무원)는 3월 2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8차 정기종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무원 스님 임명 동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도용 종정예하는 무원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종의회 폐회 후 신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에게 총무원장 임명장과 함께 전형위원회 위원, 상벌위원회 위원 위촉장도 수여했다. 신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의 임기는 4년이다.

종의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무원 스님은 수락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저를 총무원장으로 지명해주신 종정예하께 공경의 정례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지금 우리는 환경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총체적 난국을 맞아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먼저 변화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차대한 시기에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종단 발전과 국태민안을 위해 위법망구의 자세로 멸사봉공하며 총무원장으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4년의 총무원장 소임 기간 동안 호념해 주신 종정예하께 감사드린다. 종단의 여러 부서와 산하단체가 협력해 주신 덕분에 큰 과오없이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종의회는 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산하단체의 결산안을 가결했다.

한편, 무원 스님은 1979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93년 6급 법계, 2013년 3급 법계를 품수했다. 2001~2007년 총무원 사회부장, 2003년 개성 영통사 복원위원회 단장, 2011~2012년 금강신문 사장, 2011~2012년 총무원장 직무대행, 제15~16대 종의회 의원(15대 종의회 부의장 역임)과 17대 종의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유나 항조 총무국장 현덕 호법국장 천주
강주 인해 기획국장 혜명 박물관장 송천
노전 지범 교무국장 청우 원주 범용
율원장 덕문 재무국장 현담 농감 서일
염불원장 영산 사회국장 석운
보살선원장 천진 포교국장 인경

사부대중일동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다시 '컨택트 연등회'…연등행렬 만난다

연등회보존회, 올해 연등회 일정 공고

송지희 · 하성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4월 5일 봉축점등식 시작으로
4월 30일 연등행렬 등 이어져
코로나 사태 후 3년만의 재개
부산 · 전북도 행사 일정 확정

올해엔 거리를 장엄하는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을 다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등회는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큰 변화를 맞았음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축제'의 장을 대면형태로 재개하는 이번 연등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연등회보존회(회장 원행)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등회보존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표어로 내세우고, 올해 봉축연등회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준하는 규모의 대면행사로 재개키로 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전북봉축위원회도 올해 대면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다양한 봉축행사를 준비 중이다.

봉축연등회는 4월 5일 오후 7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점등식은 2020~2021년에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봉축탑은 화엄사 사사자탑을 원형으로 한 7m 규모의 탑이다.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전통등 전시회가 이어진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통등이 서울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일대를 장엄할 예정이다.

연등회의 메인행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어울림법석도 진행된다.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연희단의 신나는 율동과 찬불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자들과 참여단체들의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

행사명	일 정	장 소
봉축점등식	4월 5일(화) 오후 7시	서울광장
전통등전시회	4월 29일(금)~5월 15일(일)	조계사(우정공원), 봉은사, 청계천
어울림마당	4월 30일(토) 오후 4:30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연등행렬	4월 30일(토) 오후 7:30	흥인지문~종로~조계사
회향한마당	4월 30일(토) 오후 9:30~11:00	종각사거리
전통문화마당	5월 1일(일) 정오~오후 7:00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5월 1일(일) 오후 7:00~9:00	조계사 앞길 공평무대
공연마당	5월 1일(일) 정오~오후 6:00	공평무대/안국무대
봉축법요식	5월 8일(일) 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의 사찰

연등행렬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흥인지문에서 종로를 지나 조계사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장엄한 연등의 물결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연등행렬 관람석과 회향한마당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렬에 이어 저녁 9시30분부터는 종각사거리에서 회향한마당도 재개된다. 회향한마당은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법석이자, 축제의 현장분위기를 극대화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정오부터는 서울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린다. 전통문화마당은 연등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불교문화유산 등 다양한 불교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매년 국내외 관심이 집중돼 왔다. 올해 전통문화마당 역시 조계사 앞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마련돼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며, 공평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전통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조계사에서 안국동사거리를 거쳐 인사동과 종각역으로 이어지는 연등놀이가 특별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5월 8일 오전 10시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부산과 전북지역도 올해 연등회 일정을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확정했다.

우선 부산 연등행사는 부산연등문화제와 부산연등회, 복원 전통등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21일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을 개막하며 부산연등축제 시작을 알렸다. 부산연등문화제는 4월 22일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17일간 이어지며 대형 전통등 전시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4월 23일~24일 전통문화한마당, 4월 22일~5월 8일 소원등 달기, 5월 1일 오후 4시 무차만발공양, 4월 22일~5월 8일 무료스냅사진 체험이 이어진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3월 4일 회의에서 봉축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9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의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5월 1일 전북어린이 큰 잔치, 6탄약창 연등제, 연합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와 함께 4월3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대규모 봉축행사를 봉행하고 전주의 도심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군산, 익산 등 전북의 주요도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연등축제등 봉축행사가 열리고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등 사회 안전 기관과 각급 복지시설 등에서도 위문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0월 회관건립 20년 행사…'샤카디타' 준비 만전

전국비구니회, 3월 23일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 확정

사찰공동체 · 수행처 운영 등 추진
사찰 유지 인재연계 · 법사단 구성

올해 전국비구니회는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찰공동체 시범운영과 사찰 관리자 · 후계자 연계 시스템 시범구축, 직능별 법사단 발굴 연계 및 시범운영 등 비구니 스님들을 중심으로 활동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에 나선다. 특히 비구니 수행결사 회향을 비롯해 10월경 회관 건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기념자료 발간을 추진하며, 2023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18회 샤카니타 세계불교여성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23일 회관 1층 메따공연장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감사결과보고와 회칙제개정의 건, 2021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등 안건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공동체 사찰 및 상설수행처 마련을 위한 시범사찰 발굴운영에 나선다. 이는 12대 출범 첫해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비구니 수행과 노후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감대가 모인 데 따른 것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비구니 사찰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찰 건립 및 대상사찰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함께 비구니사찰의 지속유지를 목적으로 사찰관리자 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원하는 사찰과 스님간 연계, 비구니 인력 활용의 토대 구축을 위한 시범사례를 발굴한다. 직능별 불자회 현황파악을 토대로 지도법사단을 발굴해 불자들의 포교 및 신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 기념행사는 10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된다. 20년 전 비구니 어른스님들의 원력을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건립 당시 기록들을 정리한 기념자료집 발간도 준비 중이다.

올해 천진암 · 주어사 등 천주교성지화로 인한 불교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자료집 발간 및 포럼, 교육 등 종교편향 불교역사제자리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푸르니청정도향환경캠페인 등 대사회 분야도 전국사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승가발전을 위한 미래포럼 개최, 독거노스님 장례문화사업 구축을 위한 사례발굴 사업, 외국사미니 양성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난 2021년 입재한 비구니수행결사도 2023년 회향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매년 1~2회 수행법석과함께, 법문과 포살, 큰스님 초청 수행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행결사는 2023년 4월 제29차를 끝으로 회향한다.

2023년 6월 한국에서 봉행될 제18대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 등을 올해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행사대행을 맡은 김분희 메시인내셔널 대표에 따르면 샤카디타 대회는 2023년 6월 23일~27일로 잠정 추진 중이며, 장소는 부산 벡스코와 서울 킨텍스를 후보군으로 두고 지자체 지원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한편 올 6월 11일 임기만료 예정인 제1기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연임한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1차 운영위원회에서 현 위원장 상덕 스님의 연임을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제32차 운영위원회는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종립학교에 예비출가자 입학전형 추진

정범 스님 등 종회의원 20인 입법안 제출

동국대 등 조계종립대학에 예비출가자 입학전형 신설을 통해 젊은 인재 출가를 장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20인은 제224차 임시회에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3월 22일 총무분과(위원장 선광)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범 스님이 제출한 특별법은 출가장려특별위원회 주도로, 종단 출가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종립대학 입학시 출가를 전제로 입학생을 모집하고, 이들 예비출가자가 4년 재학 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경우 행자교육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비출가자가 대학원을 졸업하면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출가를 전제로 종립대학에 입학한 인재들에게 종법의 틀 안에서 혜택을 부여해, 청년 출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출가자의 정의에 기존 소년출가와 청년출가, 단기출가 외에 '청년예비출가' 항목를 신설했다. 청년예비출가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5계를 수계받고 종립대학(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 후 출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예비출가자는 대학입학 전까지 은사를 정해 대학에 제출하고, 교육기관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예비출가 전형으로 입학시 학과공부 외에 염불 등 습의를 익혀야 하며, 교육기관의 단체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원 졸업과 비구(니)계 수계 후 종단에서 지정하는종무기관 · 군승 · 사회복지기관 · 사찰성보박물관 등에서 3년 이상 의무복무토록 했다. 또 예비출가자가 졸업 후 승려법에 의거해 사미(니)계 수지시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송지희 기자**



청와대 석불좌상 '환지본처' 재점화 되나

尹 당선인 '용산 시대' 발표
청와대, 기념관 · 공원 활용
청와대 미남불 이전에 관심
경주서도 반환 움직임 일어
"조만간 환수운동 다시전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모습.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돼 현재 위치에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본관을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미남불'이라고 불리는 보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경주 지역으로의 환지본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 "장제스 前 대만 총통의 경우 기록관을 설립하고 자동차 등이 공개됐다"며 "기록관 · 기념관 · 박물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해 과거 대통령들을 기록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질곡의 역사와 함께한 불상

청와대 안팎으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역사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는 보물 제1977호로 지정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높이 108㎝, 어깨너비 54.5㎝, 무릎 너비 86㎝로 풍만한 얼굴과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특징이다.

이 불상이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게 된 과정은 질곡의 근현대사와 함께한다.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하라(小平)는 불상을 불법 반출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 총독에게 바쳤고, 불상은 서울 남산 총독관저가 있던 왜성대로 이운됐다.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건립되면서 불상은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실제,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의 관련 조사서에는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제 그 석불을 보되, 재삼 되돌아보며 숙시(熟視)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하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했다"고 기록돼 있다. 후일 데라우치 총독이 이 불상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비판 여론이 일어나 가져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청와대 석불좌상을 경주 지역으로 환지본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본래 위치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경주를 중심으로 일었다. 2018년 〈신라사적고(新羅寺蹟考)〉가 발견되면서 본래 자리가 '이거사지'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도 불상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지본처로 오욕의 역사 끝내야"

문화재 운동을 전개해 온 전문가들은 청와대 이전이 현실화되면 일제에 의해 경주에서 불법반출된 석불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에는 어디로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경주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수를 원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이거사로 본래 자리도 확인한 상황"이라며 "이제 청와대 석불좌상은 오욕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본래 고향인 경주로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청와대 석불좌상을 경주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는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청와대에 불상이 있는 것과 대통령 기록관에 불상이 있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청와대 석불좌상은 원래부터 오욕의 역사를 상징했다. 이제는 환수돼 경주로 돌아와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도 발굴 및 부지 매입 예산을 책정한 만큼 환수에 탄력이 붙었으면 한다"면서 "조만간 환수운동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장학제도 '동국건학장학' 신설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인재 양성을 통한 건학이념 구현에 나선다.

동국대는 "불교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을 신설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세계 유수 대학들은 그 대학만의 대표적인 장학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장학, 미국의 펄브라이트 장학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클린턴 前 대통령, 영국 블레어 총리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 인사들이 이러한 장학제도의 수혜자다.

동국대는 지난 2021년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동국대 학생들의 장학기금 모금 체계 확립과 확대를 통한 기금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동국대 대표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1기 장학생을 선발해 운영키로 했다.

신설된 '동국건학장학'은 학업성적 외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선정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지원을 지원한다. 1기 지원 자격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며, 각 학년 10명씩 총30명이 선발된다. 성적 평점 평균 3.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접수 기한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다.

또한, 동국대는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생 모임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화마가 할퀸 상처, 불교계 보시행으로 치유해요"

비구니회 2천 · 화엄회 1천만 원
고운사 1천 · 화계사 2천만 원 등
원행 스님 1억 원 동해시에 전달


조계종은 이철규 동해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십시일반한 2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가 1000만원을 쾌척했다.

경북울진 ·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불교계 자비온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와 부산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서울 화계사 등 전국에서 잇따라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4일, 산불피해 복구기금 1억 원을 이철규 동해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원행)을 통해 산불피해복구지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회장 본각 스님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상덕 스님은 "산불 발생 후 인근 비구니 스님 운영 사찰을 잘 살폈다"면서 "국가적으로 큰일을 겪은 만큼, 전국 19개 지회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더 큰 피해 없이 산불이 멈춰 다행"이라며 "스님들이 원력을 갖고 기도 잘 해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총무부장 현진 스님, 사업부장 덕환 스님과 비구니 종회의원 혜도 스님, 철우 스님이 참석했다.

부산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회장 상화)도 경북울진 산불피해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총무 효광 스님은 "48명의 회원 스님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멀리서 도와줘 마음이 더 든든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화엄회는 이날 대성암 선원장 자행 스님의 성금도 대신 전하며 사건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단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인천 지선사(주지 덕환)와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도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지선사 주지 덕환 스님에게 "어려운 살림에도 큰마음을 내줘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배들 취지와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사찰을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화계사는 산불 피해 지원금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도 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수암 스님은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과 폴란드 출신 관미 스님이 난민 구호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직접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도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한마음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불교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속속 답지함에 따라 조계종은 복구를 위한 모연금을 전달하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3월 24일, 이철규 동해시 국회의원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日, 책임 인정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참회하라"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분들에게 석고대죄하며 참회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의 주관으로 진행된 제153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소녀상 주위를 미리 선점한 단체들에 밀려 소녀상에서 70여m 떨어진 곳에 경찰이 설치한 폭 2.5m 길이 50여m 바리케이트 안에서 열렸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동참한 30여 명의 단체와 시민들은 바리케이드 안에서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수요시위를 지지했다.

이날 지몽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질타하며 할머니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노위원 고금 스님의 법고에 이어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도 함께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검색창에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검색하세요

2022. 4. 7(목) ~ 10(일)
대구 EXCO(엑스코) 서관 1홀
공식홈페이지 www.bexpodg.kr

주요 프로그램

주제전	- 전통문화와 일상을 잇는 대구 무형문화재 장인 특별 전시
문화·산업전	- 도자, 금속, 옻칠, 목공 등 신라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온 불교공예전 - 불상, 불화, 단청 등 전통 불교미술 및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불교예술전 - 차, 수행의식, 문화산업 등 일상생활에 자리잡은 불교문화전
기획전	- 대구경북 각 지자체의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지자체특별전 - 해외 불교문화를 만나는 해외교류전
특별전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홍보 - 사찰 음식 특별전 - '본디나' 불교문화상품 특별전시
부대프로그램	- 연꽃무드등만들기, 전통문양 블록체험 등 불교 및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삶의 지혜를 주시는 유명 스님들의 법문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

주최 불교신문 BBS불교방송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불교종연합회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고운사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협력 (사)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사) 대한민국명인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사)한국차인연합회

2022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사무국
대구사무국 : 053-427-5114
엑스포사무국 : 02-2231-2013
bexpo@daum.net

무료사전등록 바로가기QR코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상월결사 反戰평화순례

3월 23일 대흥사서 순례, 우크라이나인 등 5백여 대중 참여

해남 대흥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회주 자승 스님 필두로 9.6km행선
한마음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부처님전에 전쟁종식 기원꽃 올려
우크라이나인 “불자 마음에 감동”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우크라인들이 함께 순례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기들고 평화기원하는 순례단.

“맑고 밝은 빛의 부처님, 우리는 함께 하는 인류애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위로하겠나이다. 저들의 고통 곁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인류평화의 길을 굳게 믿어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분별과 차별이 없도록 일심발원합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넘어 세계평화를 위해 상월결사 사부대중이 다시 길을 나섰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3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상월결사 대흥사 평화순례’를 봉행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이번 순례에는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불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대흥사 동국선원 선덕 정찬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영길 前 민주당 대표, 김영대 민주당 최고위원, 명현관 해남군수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날 순례에는 학생과 일반인, 교민 등 우크라이나인 3명과 체코인 1명,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 출신 법현 스님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댄서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고국의 전쟁소식을 접한 알레나 비츠코 씨(25)는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역 출신인 알레나 씨는 또 다른 참가자인 류다 씨와 함께 3월 22일 봉은사템플스테이를 하고, 이날 순례에 동참했다.

알레나 씨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스님들의 배려로 순례 전날에는 명상을 하며 걱정의 마음도 많이 내려놓게 됐다”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의 응원과 지원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반 알렉산드라 씨(20,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남부 마리우폴 출신으로 순례에 참석했다. 고려인이기도 한 알렉산드라 씨는 “할머니가 계속 마리우폴에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알렉산드라 씨는 “기독교인인데도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가족의 건강과 전쟁 종식을 빌었다”고 털어놨다.

같은 학과 동기인 스니자나 씨(20,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는 “체코로 가족들이 피난을 간 상태”라며 “연일 이어지는 공습 소식에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오늘 응원해주는 분들, 특히 스님들과 함께 걸으니 먼 나라에 와 있지만 외롭지 않고,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삼산면 구림리 인조잔디장에 집결, 대흥사까지 왕복 약 9.6km를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함께 걸었다. 대흥사에서는 부처님 전에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헌화를 하고 사부대중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향에서는 이들에게 불자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달됐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우리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극심한 고통과 걱정 또한 지혜롭게 살펴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오늘 신심과 원력으로 함께하는 평화순례는 이러한 의미가 넓게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둔산 대흥사는 역사적으로 호국의 기운이 서린 곳”이라며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세계평화는 맞닿아 있다. 오늘의 순례로 호국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평화도 함께 기원하자”고 발원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4월 27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2차 평화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교원, ‘어린이법회 의식곡’ 영상 제작

어린이법회 눈높이 맞춰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전법중심도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법회 의식곡’(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사홍서원) 영상을 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찰에서 온라인 어린이 법회 비율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포교원은 ‘찬불가 율동 영상’에 이어, ‘어린이 법회 의식곡’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영상은 온라인 법회 뿐만 아니라 대면 법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영상제작은 ‘좋은벗풍경소리’와 함께 진행했으며, 삼귀의·사홍서원은 기존 음원에 일러스트와 목탁소리를 더하고, 우리말 반야심경은 조계사 어린이들의 합송을 녹음했다. 제작된 ‘어린이 법회의식곡’은 포교원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며, 키즈 붓다(www.kidsbuddha.org)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직지〉에 담긴 가르침에 프랑스 열광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으로만 알려져 있던 ‘직지심체요절’의 내용을 접한 프랑스인들이 선불교 정수와 그 사상적 깊이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직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_활자의 시간여행’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방영되자, 현지인들은 1시간 30여 분간 질문을 이어가며 〈직지〉와 선불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3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직지_활자의 시간여행’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며 현지 반응을 사진과 함께 본지에 제공했다. 이날 시사회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자리로, 프랑스 탐험가 협회 · 지리학 협회본부 대강당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백만원력 · 포교기금 쾌척

3월 22일, 2천만 원 전달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활성화 단체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과 포교를 위해 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결집불사기금 1000만 원과 포교기금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생명나눔이 전달한 포교기금은 포교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27년을 이어오는 동안 20만 명의 후원회원이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며 “백혈병과 소아암 등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통해 매년 5~60명의 생명을 살려왔다. 또 극한 상황에 몰린 환자들을 선정, 한달에 한 번 치료비를 전달하는 등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 간 대면 활동에 소홀했지만, 모금은 잘 되고 있다”면서 “종단 중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포교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금 쾌척의 목적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일상이 멈추고 어려운 시기가 이어졌지만 큰스님의 원력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큰일을 해달라고”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뇌병변장애 고명숙 시인 ‘우리사랑’ 출간

보리수아래 8번째 감성 시집
사랑하는 삶에 대한 시 62편



코로나19 속에서도 장애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해온 장애불자 모임 ‘보리수아래’가 감성시집 시리즈 8번째 시집 ‘우리 사랑’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의 주인공은 뇌병변장애인 고명숙 시인.

‘우리 사랑’은 가족과 이웃, 타인, 자연 속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시 62편이 담겼다.

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뭇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시집의 제목은 시인이 키우는 고양이와 토끼의 이름이기도 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마음을 이해하는 삶 속에서 모두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료상담가이자 작사가이기도 한 고명숙 시인은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 시낭송, 한국장애인문학협회 동화집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시인은 “장애인으로서 힘든 조건에도 어느 불제자들 못지않게 깊고 진실한 불심을 가진 고마운 분들을 만나 소통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며 “보리수아래 장애불자들의 문학사랑, 예술사랑, 불교사랑의 길을 따라 다른 생명을 위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아래는 2020년 2월 뇌병변장애인 성인제 시인의 시집을 시작으로 이경남, 김영관, 홍현승, 이순애, 성희철, 장효성, 윤정열 등 장애시인들의 시집 7권과 수필집 1권을 펴낸 바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6~20일 보리수아래 감성시집과 수필집에 실린 작품을 이민형 한학자 겸 서예가가 글씨 독후감으로 표현한 ‘훈장님이 글씨로 쓴 보리수아래 감성시전’을 준비하고 있다. 02)959-2611 임은호 기자





인경 스님은…1988년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9년 '몽산덕이(夢山德異)와 고려후기 선사상 연구' 로 동국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상심리상담이라는 분야를 처음 개척해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창립을 이끌었다. 현재 목우선원장,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쟁점으로 살펴보는 간화선〉〈염지관명상〉〈에니어그램성격검사지와 응답지〉〈명상심리치료〉〈순례자의 은빛나무〉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간화선=쟁론의 역사…문화 이끈 창조적 갈등 조명"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인경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불교 전통의 선(禪) 수행방법이다. 전승돼 온 공안(公案)을 참구하는 것인데, '이뭣고' '끽다거' '부모미생전'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선문답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간화선은 어려운 것' '스님들이 하는 수행법' 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현대의 스님들은 이 같은 간화선을 대중화하고자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다. 이 같은 시도는 일정부분 성과를 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선(명상)과 심리학, 상담학을 접목하는 것이었다.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인경 스님은 선과 심리 · 상담학을 접목한 '명상심리상담'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선지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가 전 고등학생 때부터 송광사의 선지식인 구산 스님에게 간화선을 배운 인경 스님은 간화선뿐만 아니라 위빠사나도 수련해 1990년대 초 한국에 이를 알리기도 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명상심리상담' 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쟁론으로 간화선 고찰

인경 스님은 최근 〈쟁점으로 살펴보는 현대 간화선〉을 출간했고, 3월 19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쟁점으로 살펴보는 현대 간화선〉은 2011년 발간한 〈쟁점으로 살펴보는 간화선〉의 개정증보판이다.

주석처인 목우선원에서 만난 인경 스님에게 '쟁론' 이라는 주제로 간화선을 고찰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스님은 "간화선은 쟁론의 역사"라는 답이 곧장 돌아왔다.

"간화선은 선문답에서 출발합니다. 선문답이라는 게 뭡니까. 묻고 답하는 것이죠. 묻고 답하는 그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과 갈등이 간화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쟁점을 통해서 간화선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물이 한데 뒤섞이는 것이죠. 창조적 갈등은 문화를 이끌게 됩니다. 불교와 간화선은 이 같은 창조적 쟁론의 역사입니다."

스님이 증보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 "현대 시점에서 진행된 쟁론의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쟁점으로 살펴보는 간화선〉이 발간된지 대략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나 학계나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에 '현대' 를 추가한 것은 현대 시점에서 진행된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처럼 개정증보판에는 기존 연구와 더불어 "현대 시점에서 진행된 논의의 쟁점"들이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제3장 대승불교의 성립과 비판불교의 비판 △제5장 마조의 평상심시도 △제10장 화두참구의 수행체계다.

제3장은 1990년대 일본학계에서 시작된 비판불교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불교는 대승불교의 불성사상을 아트만적으로 이해하고 '대승불교는 비불교이며, 동북아시아의 선종을 반불교' 라고 비판한다. 비판불교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인경 스님은 정면으로 맞선다. 스님은 '닷뚜(dhātu)' 의 해석을 근거로 든다.

스님에 따르면 '불성(佛性)' 을 '붓다닷뚜(buddha-dhātu)' 라고 하는데 '닷뚜' 는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뜻한다. 다시 말해 '붓다닷뚜' 는 붓다의 유골이자 사리이며, 이는 불탑신앙에 유래해 내면화된 불성으로 변환됐다. 또한 '닷뚜' 는 신체의 구성요소나 핵심성분을 의미하며, '붓다닷뚜' 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나 성분이기에 '불성' 으로 한역하는 것이 맞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대승불교의 핵심된 키워드는 '다뚜(dhātu, 性)' 입니다. '붓다-다뚜' 는 '모든 중생은 붓다의 사리를 가졌다.' 는 것으로, 곧 인간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구성요소 · 성분' 을 의미하고, 이것이 '불성' 입니다. 불성은 외부 존재하는 실체란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의 공통된 성품이라는 법성(法性), 스스로의 성품(自性), 신령한 영적 성품(靈性), 본래 존재한 성품(本性) 등은 모두 불성과 동의어로 사용되죠. 그렇기에 간화선은 스스로 성품, 본래 존재한 성품인 불성을 무엇인지 묻는 과정입니다. 불성과 여래장을 인도의 아트만이나 힌두이즘의 신의 개념으로 치부하고 배제한 것은 불교의 깊은 문화적 전통을 인식하지 못한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5장은 마조의 '평상심시도' 와 관련해 '평상심이 어떻게 도인가' 하는 종밀을 비롯한 성리학에서 비판을 다룬다. 평상심은 번뇌를 포함한 관계로 그 자체로 도가 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스님은 선사상에 대해 살펴보며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쉽게 말해서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왜 침공했겠어요. 모두 욕심때문이죠.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의도된 욕심이고 적의 가득한 마음입니다. 평상심과는 거리가 멀죠. 평상심은 욕심이나 번뇌로 물들여진 마음을 벗어난 청정한 마음입니다."

화두, 실존적 자기 문제

간화선 수행체계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제10장도 눈길을 끈다. 인경 스님은 간화선의 중심인 화두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한다. 기존의 화두가 너무 문헌적이거나 과거 선문답에 한정돼 현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다. 스님은 화두에 대해 "수행자가 지금 여기 현재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해 절실하게 의심하고 참구하는 실존적 자기문제"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간화선의 영역을 과거 유물로부터 당 · 송대의 동어반복에서 해방시켜서 현재의 현실적 과제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쟁점으로 살펴보는 간화선' 증보
명상붐 · 비판불교 비판 등 담아
간화선 쟁점 10가지 체계적 분석

대승불교 '불성' 바른 이해 강조
'dhātu'는 아트만 아닌 연기 의미
"대승비불설, 불교 몰이해" 비판

명상붐 시대별 분석한 논고 눈길
"기도만 하는 종교, 앞으로 한계
명상상담 병행…재가자 역할 중요"

지난해 8월 동방문화대학서 퇴임
상담교육원 · 학회 사업 매진 계획
"재가 안거 운영 · 교재 편찬 구상"



3월 19일 열린 정념퇴임 기념식에서 후학들이 인경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스님은 해당 논고에서 불성과 영성의 문제를 현대 심리학으로 살핀다. 스님은 불성의 동의어로서 '영성' 을 주목한다.

"WHO는 인간이 몸과 마음,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성(spirituality)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영성은 불성과 동의어로 온전한 전체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최근 대두되는 종교와 심리학이 결합된 자아초월심리학과도 연결됩니다. 선종 견성성불의 주된 가치인 불성 · 영성도 자아초월심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간화선의 고유한 전통성을 확립하는 문제로 공적영지로써 보조지눌의 전통을 중시하고, 현대에는 한암 선사와 구산 선사에게 계승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구산 스님은 '공적' 과 '영지' 라는 간화선 화두참구의 과정을 점검시스템으로 활용한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명상붐 어떻게 볼 것인가

스님은 사회에서 간화선의 고찰해봐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화두처럼 던져놓았다. 이는 제1장 '명상붐의 전개와 불교계의 대응' 에서 잘 나타난다. 인경 스님은 해방 이후 대중에게 알려진 명상 시기를 1970년대 명상 유입기, 1990년대의 대중화, 2010년 이후 토착화 3단계 과정으로 분류하고 조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명상 유입기에는 인도명상, 요가명상, 초월명상이 들어왔다. 대중화시기에는 위빠사나가 유입됐으며, 불교 내부적으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논쟁이 본격화됐다. 명상의 토착화 시기에는 2차에 걸친 사띠 논쟁과 더불어 선 · 명상이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인경 스님은 명상붐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특히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명상은 곧 종교의 효용성과 연결된다는 게 스님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기도 중심형 종교' 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성적 올려달라' 고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당연히 안 올라가죠. 이제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도나 구복(求福)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 같은 인식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불교의 방향도 변화해야 합니다. 카메라 시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래 전에는 필름카메라가 대세였죠. 어느 순간 디지털카메라가 출시되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DSLR카메라가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고화질 해상도를 자랑하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보편화가 됐죠. 이 과정에서 코닥과 같은 필름을 생산하던 회사나 기존 디지털 카메라 회사는 도산하거나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스님은 명상수행과 상담, 사회참여를 강조했다.

"기도와 염불, 의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종교 행위는 그 자체로 필요합니다. 유지 · 전승해야죠. 다만 시대가 변화한 만큼 그 중심점을 기존의 기도 등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명상 · 상담 · 사회참여(봉사)라고 봅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방향이죠. 여기에서는 재가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가자가 포교와 수행의 영역에서 활동해야합니다."

명상심리상담 교재 편찬 노력

인경 스님은 지난해 8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에서 정년퇴임했다. 15년가량을 교직 생활을 하며 26명의 박사를 배출했다. 3월 19일 열렸던 출간 기념회는 스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100여 명의 후학들은 스님의 저서 출간과 퇴임을 축하했다. 이내 동방문화대학원대학을 포함해 총 20년 2개월의 교직생활을 마친 소회가 궁금했다.

"소감이랄 것은 별 것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 있었던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저를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가 26명이 된다는 게 기쁩니다. 연구 중심의 대학이니까 이렇게 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기쁨이고 행복이었죠."

출가 전 초등학교 교사였던 인경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입학해 졸업한 뒤 현호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로 출가했다. 나중에는 동국대에서 '몽산덕이(夢山德異)와 고려후기 선사상 연구' 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우고 가르치며 학교에 몸담고 있던 기간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할 일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 수행자로서 수행에 집중하고,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뿐이다.

"한국명상상담심리교육원과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사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명상상담심리 관련 교재들을 편찬할 계획입니다. 이번 〈쟁점으로 살펴보는 현대 간화선〉도 일종의 교재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교재를 꾸준하게 편찬 ·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가자를 위한 안거 수행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서산 대사는 '눈 내리는 벌판 한 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라는 한시를 지었다. '후세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라도 곧은길을 가라' 는 뜻일 것이다. 실참하고 연구해 '명상심리상담'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경 스님은 '곧은길' 을 가는 선지식이다. 스님의 보여줄 이정표의 궤적이 기대된다.

흥륜사, 혜해 스님 사리친견 법회 봉행

3월 19~31일까지 흥륜사 금당서
녹색 치유사리 등 200여 과 친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부대중, 봉안 전 사리 친견요청
남북 평화 염원 담은 사리함 제작
수행 가르침 위해 금당 선방 봉안

조계종 원로 비구니 혜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주 흥륜사(주지 법진)는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경내 금당에서 '보주당 혜해 선사 사리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원적 2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사리 친견 법회는 사리 봉안 전에 마지막으로 사리 친견을 원하는 불자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대중은 사리친견법회를 통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며 혜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19일 봉행된 법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주지 법진 스님과 사리함을 제작한 최상기 작가의 인사말, 친견 순으로 짧게 진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법진 스님과 선방 입승 법경 스님을 비롯해 수좌 스님들과 불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법진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이런 시간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대중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사리 친견 법회는 여러 불자들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큰스님을 마지막으로 뵙는 심정으로 모였고 큰스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자리이다. 하심과 정진을 당부한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리함을 제작한 최상기 작가는 "혜해 스님의 사리함을 제작하면서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큰스님의 염원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흥륜사가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기점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며 "작업을 하는 동안 믿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혜해 선사의 사리는 친견법회가 끝난 후 사리장엄구에 봉안된다. 스님의 유지에 따라 금강산으로 이운할 스님의 사리


경주 흥륜사는 3월 19일 경내 선방 금당에서 '보주당 혜해 선사 사리친견 법회'를 개최했다.

3과와 법골 등은 별도로 봉안된다. 4월 24일 오전 11시에 경내 금당에서 혜해 스님의 사리를 흥륜사 금당에 모시는 낙성식을 봉행한다.

혜해 스님은 2020년 5월 29일 세납 100세 법랍 7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으며, 참선 수행과 대중을 교화하는 데 헌신했다. 입적 당시 혜해 스님의 법구에서는 치유사리로 불리는 녹색사리 등 200여 과의 사리가 나왔다.

선방 입승 법경 스님은 "스님의 사리 가운데 녹색 사리는 티베트 따라 보살님 이후 처음 나왔다. 녹색 사리는 치유의 사리로 불린다. 스님의 사리함을 선방에 모시는 이유는 더욱 정진하라는 스님의 당부를 선방에 새기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흥륜사는 사리함을 흥륜사 참선 수행 공간인 금당에 봉안하고 또 사리 3과와 법골을 보관 후 금강산에 봉안할 계획이다. 혜해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출가했으며 남북 평화를 기원하며 북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당시 1000일 동안 정진 수행했다.

사리함은 혜해 스님의 정진, 인욕, 근검, 하심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소박하지만 세밀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함께 담고자 노력했다. 사리함은 사리병, 사리호, 사리함(내함), 원형합, 사리함(외함), 팔각함, 사천왕상(사천왕이 새겨진 사리보관함) 등 총 일곱 겹으로 구성된 함(函)으로 만들어졌다. 사리함의 재료는 금, 은, 동이며 사리함을 장식하는 장엄물은 자개, 숯, 열매, 나무 등을 깎아 보석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붙였다. 특히 사리를 직접 보관하는 사리병은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리병은 순금으로 제작됐으며 아래 바닥 부분은 순은을 연화좌대로 꾸며 장식했다. 사리병을 닫는 뚜껑은 자개로 연꽃 봉우리로 만들어 씌웠다. 사리병은 향나무를 가공해 만든 보조병에 담은 뒤 은으로 제작한 사리호에 담는다. 그 외 사리호 및 사리함 내함과 외함 등에는 혜해 스님의 유년 시절과 해탈을 상징하는 언덕을 넘어가는 모습, 성철, 향곡, 월산, 서옹 스님과 담소하는 모습을 새겼다. 아울러 남과 북, 흥륜사와 신계사 그리고 경주 남산과 금강산의 조화를 상징하는 의미와 금강산 신계사에 머물며 법기암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담았다.

해동용궁사, 울진산불 복구 지원금 전달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3월 18일 울진군청에서 '울진산불재해 복구 지원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해동용궁사는 울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 23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주지 연규 스님이 기부한 1000만 원과 해동용궁사 신도 및 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1100만 원, 의왕 용화사 신도회가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100만 원, 불교용품 판매 기업 선행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100만 원을 모았다.

주지 연규 스님은 "해동용궁사는 현재 울진 산불 재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나눔을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을 입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정관암, 제1회 화전놀이 개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이 3월 22일 경내에서 '제1회 화전놀이'를 개최했다.

화전놀이는 전통 봄맞이 화전 만들기를 통해 한해 안녕과 마을의 화목을 도모했던 조상의 지혜를 이은 행사이다. 정관암은 화전놀이를 통해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봄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원했다.

행사에는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이국세 정관암 신도회장, 서범수 국회의원, 정은영 울산불교문인협회장, 서진길 울산문화원 원장, 황정자 울산다도예절협회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상회복 기원, '불기2566 부산연등축제'

연등문화제 및 연등회 등 행사 다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3월 21일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연등축제의 출발을 알렸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표어 아래 열리는 '불기 2566 부산연등축제'는 크게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회' 그리고 '복원 전통등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에서는 전통등 40여 점을 선보였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닥종이로 상세히 재현한 공예작품을 선보였다.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은 4월 17일까지 이어지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운 스님은 "오늘 개막하는 특별전시는 전통기법을 활용한 닥종이 공예로 한국의 대표적인 가람배치 작품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전통사찰의 의미와 위치 등을 친숙하게 접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21일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을 개막하며 부산연등축제 시작을 알렸다.

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연등문화제**는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17일간 이어지며 대형 전통등 전시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점등식은 4월 22일 오후 7시에 열리며 불교, 동화, 캐릭터 테마 전통등을 비롯해 대형등 약 70여 점과 범어사 7층 석탑등과 삼광사, 진각종 등에서 출품한 사찰등을 비롯해 각종 구조물(큐브등)이 전시된다. 체험행사는 종단 및 사찰, 단체에서 참가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불교 및 전통문화를 알리는 전통문화한마당(4월 23~24일)과 소원등 달기(4월 22일~5월 8일), 무차만발공양(5월 1일 오후 4시), 무료스냅사진 체험(4월 22일~5월 8일) 등이다.

△**부산연등회**는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집결은 오후 4시이며 5시부터 연등회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부산연등회 행사가 이어진다. 먼저 1부에서는 육법공양과 영산재, 관불의식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한다. 봉축연합대법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태민안과 부산발전을 기원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발원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호기놀이와 연등행렬이 진행된다. 호기놀이는 문헌과 범어사 팔상전 벽화를 근거로 재현한 전통놀이다. 연등행렬은 종단, 사찰, 단체에서 준비한 화려한 의상과 율동을 보여주며 등을 든 연희단이 포퍼먼스와 함께 행렬을 진행한다. 연등행렬 구간은 약 3km이며 부산시민공원 북문을 출발해 교육청 앞을 지나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 송공삼거리를 통과한 후 송상현광장 전포로에서 회향한다.

보운 스님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표어처럼 부산연등축제는 부산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부산연등회, 부산연등문화제를 비롯해 전통등 강습회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부산연등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불자들에게 우리 불교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 노유자복지시설 착공

부산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3월 22일 경내에서 노유자복지시설 착공식 및 안전기원재를 봉행했다.

노유자복지시설은 노약자와 아동,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3층 규모이며 시설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천불정사는 부산 중심 번화가인 부산대 인근에 위치해 접근도가 편리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복지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아울러 천불정사는 지역 부산대에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및 쌀 나눔 등을 실천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노유자복지시설을 통해 천불정사는 나눔 뿐 아니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로 더 발전한다는 의지다. 8월 중 완공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경 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해인사, 3년 3개월 화엄경 완독 대장정 입재

화엄경 완독 제1차 법회
3월 19일 특설법회장서

2024년 5월 17일까지 진행
원각 스님 '보살행' 강조해
무비 스님 등 강설 이어져


합천 해인사는 3월 19일 해인사 대적광전 법계탑 마당 특설법회장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제1차 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종림 합천 해인사가 화엄세계 구현을 위한 3년 3개월의 화엄경 완독 대장정에 돌입했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19일 해인사 대적광전 법계탑 마당 특설법회장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제1차 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사 대방광불화엄경 완독 대법회는 이날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 3년 3개월간 총 39회 펼쳐진다. 법회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읽고, 법문하고, 사경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80권 화엄경 합송을 시작으로 사경 등이 진행되며 무비 스님 〈화엄경〉 강설과 함께, 해인도 요잡, 윤장대 돌리기 등도 이뤄진다.

1차 법회에는 해인종림 방장 원각 스님이 증명 법주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운영법주로 자리, 산중 원로스님들과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법고 및 범종 5타를 시작으로 7처9회 예경, 개막법어, 화엄경 약찬게 합송, 화엄경 세주 묘엄품 합송, 강설법어(무비스님 영상법문), 화엄 예찬 발원문, 법성게 합송 순으로 진행됐다.

원각 스님은 이날 법어로 "마음에 따라 짓지 못함이 없는 법"이라며 "세상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한다는 화엄은 청정하고 바른 공덕의 보살행을 의미한다.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의 근본이 다르지 않고 그 근본을 회복, 지혜롭게 생활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영상법문을 통해 "이제 시절인연이 되어 해인사에서 3년 간 대중이 이를 함께 부르니 너무나 기쁘다. 화엄경을 공부하고 나면 불문에 제대로 입문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春 알리는 화엄사 홍매화 보러오세요"

화엄사 홍매화 사진경연대회 개최


화엄사 대중들이 홍매화 사진경연대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손하트를 하고 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이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는 매화가 피는 계절이 왔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19일 경내 원통전 앞에서 '제2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회식'을 개최했다.

천연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는 화엄사 홍매화는 호남의 5대 매화중 하나로, 그 빛깔이 짙은 선홍색이라 흑매라 부른다. 그런 이유로 사진작가들의 작품 창작의 선호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나무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화엄사는 사진 경연대회를 개최해 올해 두 번째 갖는다.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경연대회 개회식에는 덕문스님, 이기흥 리더스포럼 상임대표,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의회 의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개회를 축하했다.

덕문 스님은 "오늘은 오랜 세월 저희에게 꽃과 향기를 홍매화에 드리는 음성공양이다. 홍매화가 앞으로 오랫동안 기쁨과 희망, 향기를 주는 나무로 남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화엄사는 홍매화에 대한 음성공양으로 현악 4중주 연주와 바리톤 이광일의 '아름다운 나라' 등을 선사했다.

한편 사진 경연대회는 전문 사진작가 참여와 일반 시민들의 휴대폰 촬영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 인재불사 눈길

3월 17일 취봉장학금 전달식


우담문중회 이사장 도홍 스님과 장학수혜학생들이 장학증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가 취봉 스님 입적 20주기를 맞아 인재불사에 나서 눈길을 끈다.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이사장 도홍)는 3월 17일 창원 불곡사 관음전에서 제20주기 취봉스님 추모 다례재 및 우담문중 제2회 취봉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나눔법회에는 우담문중회 이사장 도홍 스님, 교육원장 능산 스님,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 김해 팔봉암 법산 스님, 마산 봉곡암 도광 스님, 불곡사 송암 스님, 대원사 연공 스님 외 스님들과 이성품화(이영희) 신도회장, 김금강원(김순자) 장학회회장, 법력심 관음회회장, 자력심 보리수합창단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이선주(창원 남산고등학교 1학년), 박왕준(토월고등학교 2학년), 모승현(경일고등학교 2학년), 박지원(창원고등학교 2학년), 진유경(봉곡중학교 2학년), 박경빈(함안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받았으며 50만원 씩 총 300만원이 전달됐다.

이사장 도홍 스님은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장학회가 되길 서원한다. 지역 자선단체로서 아름답게 매진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회원 간 믿음과 존중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함께 서로 이웃이 되는 불국정토를 만들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련 제5대 이사장에 정무 스님 취임

3월 20일 밀양 용궁사서 취임식 봉행


제5대 이사장 정무 스님이 동련기를 흔들고 있다.

사)동련, 제5대 이사장에 정무 스님이 취임했다. 사)동련(이사장 정무)는 3월 20일 밀양 용궁사 경내에서 제5대 이사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동련 부총재 정토사 덕진 스님, 부총재 지광 스님, 4대 이사장 신공 스님, 밀양사암연합회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 5대 이사장 정무 스님, 상임이사 미수 스님 외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 엄수면 밀양시의회 부의장, 최미선 동련 국장 등 관계자 및 사부대중 100여명 동참했다.

동련 신임이사장 정무 스님은 "사단법인 동련은 이 땅의 어린이 불교를 위해 태동한 단체"라며 "정관 스님과 역대 스님들의 원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활발한 어린이포교와 전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유일 어린이 포교단체로 자리매김했지만 코로나19와 저출산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 인원이 줄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활성화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재사고 피해민에 사랑의집 선물

진안군자원봉사센터 3월 23일 사랑의집 신축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가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에게 사랑의 집을 선물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는 3월 23일 진안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0호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 입주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성 스님, 쌍봉사 보경 스님, 송하진 도지사, 전춘성 군수, 김광수 의장, 이한기 도의원, 최주연 센터장을 비롯한 후원자, 집짓기 자원봉사단, 동향면 자원봉사단, 마을주민 등 50명이 참석하여 입주를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재종 제3대 총무원장 영각 스님 취임



선재종 제3대 총무원장에 영각 스님 〈사진〉이 취임했다. 대한불교선재종(총무원장 영각)은 3월 24일 선재종 총본산 광주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의 창종' 수준의 쇄신을 선언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선재종 원로의원 마덕 스님, 태고종 경남서부종무원장 성각 스님,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도암 스님을 비롯해 종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영각 스님은 "저와 3대 집행부는 출가자의 본분을 지켜,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유가중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월주 총 무 화평 사 회 우림
회 주 금산도영 기 획 광진 포 교 제환
주 지 월강일원 교 무 석초 호 법 덕림
부주지 시산원혜 재 무 여찬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달라이라마, 2년 만에 법문…수행정진 격려

3월18일, 다람살라 남걜사원
티베트력 정월대보름 맞아서
'본생담' 법문…보살계 수계
건강 이상설 대한 논란 일축

박영빈 객원기자


법문을 위해 관저에서 나오며 인사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2년 만에 공개 대중법문을 가졌다. 달라이라마는 3월 18일, 티베트력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람살라 남걜사원에서 대중에게 〈본생담〉 내용을 법문하고 보살계를 수계했다. 달라이라마의 오래간만의 외출에 '더 티베트 넷',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외신이 이를 보도했다.

티베트력으로 정월 대보름은 티베트에서 '신변절(神變節)'이라고 불린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날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신통을 보이며 육사외도를 조복하신 날로 기념된다.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본생담〉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수행정진하신 공덕을 기억한다.

지난 18일, 인도 다람살라 남걜사원에서는 사부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라마를 법사로 〈본생담〉 가운데 '베산타라 자타카'의 이야기를 청해 듣고 보살계 수계를 봉행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2020년 1월,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대중법회를 가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람살라의 관저에 칩거해왔다. 이날 대중법문은 약 2년 만의 일이었다.

이날 오전 관저를 나온 달라이라마는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남걜사원에 마련된 법상에 올랐다. 달라이라마는 두 손을 주먹 쥐고 앞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래라면 오늘 델리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여러분이 보다시피 나는 매우 건강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달라이라마는 "이전에는 매년 겨울 부다가야를 방문하고 델리를 들러 검진을 받았으나, 지금은 매우 건강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꿈붐(달라이라마의 고향마을)에서 온 이 노승은 매우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 이상설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께서는 결코 중생의 업을 직접 손으로 덜어내거나 물로 씻겨 주실 수 없다. 또 당신께서 배우시고 깨달으신 바를 우리의 손에 쥐여 주실 수도 없다"면서 "다만 그 아시는 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 중생들이 직접 듣고 사유하여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스스로 나아갈 가야 함을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승복을 걸치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아닌 어떤 옷을 걸치고 있든, 법을 배우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지런히 문사수를 닦을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베산타라 자타카'를 간략히 소개하며 신년에 〈본생담〉을 읽는 건 부처님의 생애와 공덕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살계를 수계하고 다시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다. 어쩌면 나중에 지팡이를 짚고 이 자리에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 가르침을 계속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할 것이니,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법문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시통역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한국어 달라이라마 채널에선 한때 400명 이상이 접속하여 법문을 시청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문중계를 시청했다.

日, 맨발로 불길 걷는 '히와타리 마츠리'

야쿠오인 사원, 매년 3월 봉행
코로나19 종식·세계평화 염원


일본 도쿄의 타카오산에서 열린 '히와타리 마츠리'의 참가자가 맨발로 불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통신

일본 도쿄 타카오산 야쿠오인(藥王院)에서 봉행된 '히와타리 마츠리(火渡り祭)'의 독특한 기원 방식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로이터 통신'은 3월 13일, 맨발로 불 위를 걸으며 기원하는 히와타리 마쓰리의 모습을 보도했다.

약 1200년 전에 개산된 진언종(真言宗) 사찰 야쿠오인 사원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불길 위를 걷는 히와타리 마츠리를 봉행하고 있다. 50여 년 전부터 매년 끊임없이 행해온 이 기도회는 편백나무로 만든 기도목패를 불속에 던져 불보살을 공양하는 호마(護摩)의식 후, 남은 불씨 위를 맨발로 걸으며 한해의 무병무탈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불교에서 호마기도를 한 불씨는 일반적인 불이 아닌 불보살이 머물렀던 성스러운 불로 여겨져 이 불길에 닿거나 그 열기를 쏘이면 가피를 입는다고 말한다.

야쿠오인 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작년의 히와타리 마츠리를 산중행사로만 봉행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올해는 1500명의 참배객들이 기도에 함께했다"고 전했다. 감염방지를 위해 일반 참가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등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됐다. 야쿠오인의 가미무라 고쇼 스님은 "화염을 뚫고 지나가면 불보살의 가피로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카오산은 역병을 구제하는 기도로 개산한 도량인 만큼, 올해는 엄격한 예방책을 세우고 기도회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호마기도가 회향되고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을 나뭇가지와 삽 등으로 정리해 길을 만들고, 먼저 기도를 봉행한 스님들이 진언을 외우며 맨발로 불속을 걸어갔다. 스님들은 불길을 건너며 참가자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세계평화 등을 기원했다.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불길을 건넌 한 40대 여성 참가자는 "코로나19의 감염이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폴란드 사찰, 우크라이나 전쟁 인한 네팔인 난민 도와

티베트 사원 BKKC 린첸 스님
언론사 도움받아 피난 중이던
네팔 노동자 23명에 숙식제공


벤첸 카르마 캄창 센터에 머물고 있는 네팔 피난민들. 사진출처=카트만두 포스트

폴란드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네팔인 난민 43명을 도와 화제다. 네팔 영어 일간지 '카트만두 포스트'는 3월 18일 "폴란드 그라브닉에 위치한 벤첸 카르마 캄창 센터가 사찰을 네팔인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개방했다"고 보도했다.

벤첸 카르마 캄창 센터(BKKC)는 1995년에 설립했다. 네팔 카트만두에 본원을 둔 티베트 불교사원인 벤첸 사원의 폴란드 분원이다. BBKC의 주지 라마 린첸 스님은 "우크라이나 탈출 중 바르샤바 역에 발이 묶인 네팔인 일행을 기사를 보았다"면서 "소식을 접한 바로 다음 날 해당 언론사와 연락을 취해 바르샤바로 가서 네팔인 23명을 센터로 데려왔다"고 전했다. 린첸 스님은 폴란드 출신의 스님으로 1989년 처음 네팔을 방문하면서 티베트 출신의 고승 텡아 린포체의 문하에서 출가했다.

현재 BKKC에서 머물고 있는 네팔 피난민 파체타 셰르파는 "취업비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확히 한 달 뒤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택시를 타고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으나 피란 행렬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2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다"고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겨우 입국한 폴란드에서도 갈 곳이 없었다. 폴란드의 네팔인 협회가 바르샤바까지 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도움은 없었다. 셰르파는 "다행히 네팔과 인연이 있는 불교사원이 네팔인들을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다. 천운이었다"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또 다른 피난민인 시바 파리야르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후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면서 "외국인들을 가족처럼 보살펴주는 사원의 신도들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이민국은 현재 네팔 피난민들에게 15일 이내에 폴란드를 떠나야 한다고 고지했다. 현재 BBKC는 네팔 난민들이 다음 행선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와 물류를 제공하고 있다. 린첸 스님은 "우리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센터가 네팔인들을 돕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네팔 피난민들을 돕는 기금은 폴란드 현지 불교신자들과 사원들의 보시로 마련됐다.

BBKC에 머문 네팔 피난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곳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나갈 수 있었다. 린첸 스님과 불교센터의 모든 분들이 우리 삶에 빛을 주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린첸 스님은 "BBKC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네팔인들에 열려있다. 만약 폴란드에서 안전한 장소를 원하는 네팔인은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잘생긴 스님 보러 사찰 참배?

난징시 영곡사 학인 스님 화제
"불교도 젊다" 긍정적 평가도

중국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에 소재한 천년고찰 영곡사(靈谷寺). 주변 산세와 아름다운 정원 등으로 유명한 이 사찰에 최근 '잘생긴 스님'이 화제가 되면서 연일 참배객들을 부르고 있다. 대만의 '핑과일보'는 3월 17일 화제의 주인공 스님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6세기경 세워진 영곡사는 한때 1000명이 넘는 대중스님이 수행한 도량이다. 최근 이 사찰에서 정진 중인 한 스님의 외모가 입소문을 타면서 "잘생긴 스님 보러 영곡사 간다"며 화제가 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1996년생 치샨(持善) 스님으로 최근 베이징 중국불학원을 졸업하고 영곡사에서 정진하는 학인 스님이다. 스님은 최근 난징시 선전영상에서 영곡사를 대표해서 법당 앞에 핀 목련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스님을 직접 보거나 스님 사진을 찍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사찰로 몰려들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스님은 "촬영이나 인터뷰에는 얼마든지 응할 테니, 사찰의 수행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 달라"면서 인파들의 요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전문사진가들이 찍은 사진들이 SNS 등지에 더욱 공유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보기 위해 영곡사를 방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곡사에는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 이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며 한껏 스님을 추켜세웠다. 핑과일보는 "치샨 스님은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문학청년의 이미지를 가진 스님으로 SNS에서 팬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영곡사의 꽃과 풍광과 함께 짧은 명상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스님에 대해 "젊은 스님이 SNS로 유명세를 얻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불교에도 젊은 이미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BOOK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삶"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
최훈동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 5500원

책 속의 밑줄 긋기

'명상' 은 동양의 마음 치료법이고 '정신 치료' 는 서양의 마음 치료법입니다. … 불교 또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해탈의 경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위 둘과 같습니다. 즉 명상, 불교, 정신 치료는 마음공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공부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우리에겐 헤쳐 나갈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1장 마음 다루기 첫걸음〉中에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나 마음 쓰는대로 펼쳐지는 것 또한 삶입니다."

서울의대 외래 교수이자 정신과 전공의의 슈퍼바이저로서 25년간 정신치료를 지도하고, 휴앤심 연구소에서 명상과 심리치료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는 최훈동 교수. 그는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도서인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을 통해 친절하고 쉬운 문장으로 현대 정신 치료와 명상의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는 평을 받았다. 그가 최근 펴낸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으로 한층 심화된 명상의 세계를 소개한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을 통해 "명상을 배운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유의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책은 명상과 정신 치료의 정수를 녹여 내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기로 깨어나 온전히 사는 법을 펼쳐 보이고자 했다"고 출간 취지를 내비쳤다.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온 저자는 서양의 정신 치료를 통해 마음을 분석하고, 동양의 명상과 불교를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 저자는 지혜에 의한 통찰이 일어나야 비로소 삶이 변화함을 설명하며, 명상이 ' 마음챙김, 알아차림'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고 안아 주는 것은 명상의 시작일 뿐이다. 바라봄 너머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의 연기적 기법으로 추적해 마주하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기로 깨어나 온전히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이 제시하는 '숙고 명상' 을 따라 내면의 순례를 마치고 나면 삶의 문제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주체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명상의 몸통은 관찰과 집중 이후의 깨달음(통찰)이다. 바라봄 너머 지혜에 의한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삶이 변화한다. 이 책은 명상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고 안아 주는 것은 명상의 시작일 뿐이다. 자기 성찰을 넘어서 통찰이 일어나야 한다. 이 깨달음의 구체적 실현 방법이 바로 '숙고 명상' 이다. 이 명상은 무의식 속에 도사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의 연기적 기법으로 추적해 그 원인과 조건을 마주하고, 깊은 사유를 통해 스스로 깨달아 삶을 바꾸도록 안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며, 진정한 자기로 깨어나 온전히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삶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다루는 주제의 무게에 비해 무겁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명상이 도인의 경지에 이른 특별한 누군가가 행하는 신비한 무엇이라거나, 뜬구름 같은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명상임을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우리 안에 내재한 자비와 품성을 깨우는 길로 인도하는 친절한 마음 사용 안내서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명상에 대한 지식을 새로이 추가하기보다 '명상 경험' 을 '온전히 자신의 것' 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독자가 찬찬히 단계를 밟아가며 숙고 명상을 직접 느끼고, 경험으로

깊은 사유 통해 삶과 관점과 관계 바꾸는 숙고 명상
'숙고 명상'으로 인도하는, 친절한 마음 사용 안내서

'숙고 명상' 을 통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삶으로의 전환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현대 정신 치료와 명상의 정수를 친절하고 쉬운 문장으로 녹여내어 그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소개하는 그의 장점은 이번 책에서도 이어진다.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온 저자는 서양의 정신 치료를 통해 마음을 분석하고, 동양의 명상과 불교를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 서양의 심리학, 정신 치료 이론과 동양의 영적 전통, 역사적 사건, 불교 철학 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전문 용어나 모호한 개념보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한 실제 사례와 역사적 일화를 풍부하게 제시해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낸다. 책을 읽을 때에도 머리로 분별하는 마음보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저자의 배려이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1장 마음 다루기 첫걸음' 에서는 명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양의 '명상' 과 '불교' , 서양의 '정신 치료' 를 융합한 마음공부의 길을 설명한다. '호흡 명상' 을 기본으로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씻어내고(계행), 주의 집중하여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명상의 기본기를 다진다. '걷기 명상' 과 '잠자리 2분 명상' 등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연습을 통해 독자는 눈에 보이는 신앙이나 면벽 좌선만이 명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무엇이든 명상이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체득한다.

'2장 자신과 대면하기' 에서는 1장에서 익힌 명상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명상, '숙고 명상' 의 길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직면하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상태, '무지' 와 '무명'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을 밝히고, 명상적 성찰을 통해 마음의 작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무의식적 방어기제, 마음과 에고의 작동 방식을 정신 치료, 명상,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본다. 숙고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대면함으로써 '무지' 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3장 마음 치유 연습' 에서는 숙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2장에서 살펴본 마음과 에고의 작동 방식을 해체한다. 자기 성찰에서 통찰로 이어지는 '숙고 명상' 의 여정을 통해 불안, 분노, 두려움 등 에고가 불러오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소개하고,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의 연기적 기법으로 추적하여 마주하고, 스스로 깨닫는다.

'4장 깨어남, ' 참 나 '의 삶으로 '는 마침내 에고의 껍질을 깨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의 경지를 소개한다. 인간이 세상과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와 그 찬란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 숙고 명상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회복하여 세상 속 수많은 것과 관계 맺고, 도움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일깨운다.

저자는 명상이 삶을 떠나 있는 성스러운 무엇이 아니라 삶을 멋지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저자의 뜻에 따라 책의 소주제마다 반드시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상 연습' 과 '숙고 명상'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독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쉼표 같은 페이지이다. 그러니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본 후, 눈을 감고 사색하는 시간을 반드시 누려 보기를 권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최훈동 교수**는?

마음 전문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했다. 마음의 홍역을 깊게 앓던 중고교 시절 정신과 의사가 되리라 결심하고, 이후 정신 치료와 불교, 선을 연구하며 각종 명상을 섭렵했다. 저서로는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 〈정신의학 이야기〉 〈만화 노자 도덕경〉 〈나를 넘어선 나〉 〈정신건강 교실〉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불교와 정신치료〉 〈유식사상과 심층심리학의 비교〉 〈무아사상의 심리 치료적 의미〉 〈사무량심과 치료자의 자질〉 등이 있다.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 구 장 미 광 선 일
부교구장 육군 능원 · 공군 성광 · 해군 법원
대한민국 육 · 해 · 공 군 군 승 일 동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 예비역 군승단 일 동
대한민국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 동
대한민국 국 군 예 비 역 불 자 연 합 회 일 동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군불교 총본산이 될 호국 홍제사가 건립됩니다.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01 군불교 총본산!
• 장병, 마음의 쉼터이자 귀의처 홍제사.
• 군승법사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군장병의 불교문화 체험공간 입니다.


02 호국불교 근본도량!
• 민족과 함께하는 호국기원도량 홍제사.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 던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도량 입니다.


03 미래불교 산실!
•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포교도량 홍제사.
• 지역민의 신행처이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수행도량입니다.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02-797-7266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김영석
포교사일동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www.pogyusadan.org

내면의 마주함으로 알아차린 '마음'

한동훈 개인전 'Beyond(저편에, 너머에)'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 4월 13일~20일

지장보살도·'Beyond 시리즈' 등 30여 점
모래 등 독특한 질감에 불교적 소재 담아
혈액암 투병 시기 느낌, 새벽녘으로 표현


한동훈 作, BEYOND L-II 50.0 x 90.0 Mixed Media.


BEYOND W-III 50.0 x 90.0 Mixed Media.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그림 속에서 자신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양화과 한동훈이 4월 13일부터 20일까지(개막식 4월 13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부산시 해운대 양운로97) 2층에서 개인전 'Beyond(저편에, 너머에)'를 연다. 석탑과 풍경(風磬) 등 불교적 이미지를 한국전통미학으로 확장한 그림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Beyond(저편에, 너머에)'의 주제는 'Dawning(새벽녘)'이다. 먼저 전시 제목 'Beyond(저편에, 너머에)'는 '내면의 마주함'을 의미한다.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자신만의 생각과 추억 등을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관람객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심상(心想)을 살피면서 스스로와 대화하길 바란다.

한 작가는 2019년 2월 혈액암 투병 후 퇴원하며 앞으로 모든 전시의 제목을 'Beyond(저편에, 너머에)'로 정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촉감 등 오감(五感)의 근원이 되는 대상과의 마주함을 넘어서서 알아차리게 되는 '마음'이 작품의 주제가 된 것이다. 혈액암이라는 병과의 싸움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느낀 마음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느낀 결과이다. 한 작가는 3년을 주기로 작품 전시를 열겠다는 각오이며 다음 전시는 'Beyond(저편에, 너머에)' 시리즈로 'Beyond of Buddha(붓다 저편에, 너머에)'를 계획 중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Dawning(새벽녘)'은 현재 작가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새벽의 고요함과 하루 시작 전에 느끼는 긴장감, 그리고 여유와 평온 등을 담았다. 작가는 "투병 이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새벽과 비슷하다"면서 "다시 출발지점에 서 있는 자신의 삶과 같다"고 말했다. 한 작가에게 투병 기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히려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어 편안했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작가는 "같은 병으로 입원한 많은 환자들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것도 수차례 보았다"며 "병원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서 역설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정말 잘 지낸 것 같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고통 속에 나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어 여유로웠고 평온했다.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작가는 현재 투병기간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3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투병기간 동안 병마와 싸운 것 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도 새롭게 하고 작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렸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바빴던, 유일했던 시간"이라고 설명한 한 작가는 "병원에서 지낸 그 시간과 지금 현재가 마치 새벽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한 작가가 2018년 개인전 '생각의 전환' 이후 4년 만에 여는 전시로, 투병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그린 작품 가운데 포대화상과 지장보살도, 새벽의 느낌을 담은 'Beyond 시리즈'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한 작가는 2018년 병원에 입원한 후 광명진언 사경을 했다. 10만 번을 목표로 시작해 이번에 전시할 작품 중 복신(포대화상과 광명진언)과 지장보살도(광명진언)에도 사경을 녹여 담아냈다. 또 202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국전)에서 평론가상을 받은 'BEYOND 2021'도 함께 선보인다.

작품의 특징은 여러 재료를 활용해 표현한 질감이다. 한 작가는 마티엘(질감)을 위해 모래, 흙, 실 등 여러 오브제를 활용한다. 평면이었던 캔버스에 모래를 덧붙이고 흙을 바르기도 하며 새로운 입체평면을 만들어낸다.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질감을 담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거친 모래벽 혹은 질박한 흙이 담긴 캔버스에는 석탑과 석등, 석불, 풍경(風磬)이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작품을 하면서 색과 그림은 단순할 수 있지만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필요하다"며 "모래와 흙을 덧칠하고 입체화된 표면에 불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탄생시킨다"고 말했다.

한동훈 작가의 그림은 불교미술이지만 일반인 모두가 접하기에 거부감이 없다. '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석탑과 석불, 연꽃 등은 종교적 색채를 넘어 한국전통문화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한국전통미학의 접점을 활용해 거리감을 좁힌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며 이번 작품의 특징이다.

한동훈 작가는 불화와 선묵화 등을 그린 바 있다. 좀 더 자유롭게 불교와 전통문화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오랜 기간 방황했고 서양화가로 전향하면서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인전은 순수 전업 작가로서 9년을 돌아보는 반환점이자 2019년부터 시작한 주제 'Beyond(저편에, 너머에)'를 알리는 첫 발걸음이다.

한동훈 작가는 197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불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부탄 왕립학교 십이상도 제작에 참여(탕카), 네팔 상그릴라 사원 만다라와 국내 문화재 불화제작과 개금불사에 참여했다. 부산미술대전, 김해미술대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으며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상했다. 전시는 후쿠오카 기타노 갤러리 초대전(복신전), 단체전 및 그룹전 100여 회를 열었으며 부산시 북구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8년 개인전 '생각의 전환' 이후 이번 전시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 현재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북구미술회 Art Space Beyond 소속작가이며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평론가상을 비롯해 3회 입상했다. 010-2062-9908. 작품도록 : http://naver.me/5wmsZqJo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6월 18일 오후 1시 청주고인쇄博
5월 31일까지 공모, 6월 7일 발표
"〈직지〉 가치의미 널리 알리겠다"



2021년 제2회 전국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모습.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낭송대회가 열린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회장 이양우, 이하 직지나라사랑)는 6월 18일 오후 1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3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

직지나라사랑은 대회 개최에 앞서 5월 31일까지 참가자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직지시 낭송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참가신청서(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자유시 낭송 녹음파일(mp3, 본인 낭송 녹음, 배경음악 불가), 자유시 원문 한글파일(12포인트, 시집에서 발췌)을 이메일(juingong2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회(043-221-3090)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한 자유시 1편 녹음파일로 예선심사를 거쳐 직지시 1편(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 카페, 주인공인성협동조합 자료실 참조)으로 본선을 치른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금상 1명에게는 상금 30만 원, 은상 2명에게는 상금 각 20만 원, 동상 3명에게는 상금 각 10만 원을 수여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상장 및 시낭송가 인증서를 수여한다. 장려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이양우 회장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의 목적은 무엇보다 〈직지〉의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고귀한 유물을 남겨주신 백운화상의 업적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직지〉는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것으로, 과거칠불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어록 중에서 참선 수행자들이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은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유물임에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아직도 〈직지〉의 내용과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대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직지나라사랑이 시낭송회를 여는 이유다.

박재완 기자



“연기적 불교 인권, 플랫폼 노동 갈등 해법”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의교수 〈선문화연구〉 31집서 발표

코로나 이후 플랫폼 전성기
플랫폼노동 갈등 새로 대두
상호의존적 이해가 선행된
불교인권 개념 도입 필요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편화된 배달 · 상품 주문 플랫폼들. 플랫폼이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양상의 노동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맞았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배달받고, 상품을 주문하며, 택시를 부른다. 이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거대 플랫폼 회사는 빠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부딪치거나 택배 · 배달업계 종사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겪는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노동 갈등들이다. 이 같은 새로운 노동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론을 기반한 불교 인권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의교수(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는 학술지 〈선문화연구〉 제31집에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 기반 인권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플랫폼 노동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교수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예로 들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을 설명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사람들은 플랫폼에 접속하면 플랫폼은 주문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연결한다. 이렇기에 “배달노동자는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당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 연구교수는 이 같은 구조적 특징을 △파편화 △종속화 △관계 단절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업이 실시간으로 노동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해야했지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콜(call)을 대기하고 있다”면서 “해당 플랫폼에 노동자들이 종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가 사라지면서 기존의 사회적 규범도 사라졌다.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나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관계 단절’로 인해 새로운 갈등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권 이유로 아파트 주민과 배달 노동자들이 겪은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 안전과 개인 사생활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공공 안전이 프라이버시권보다 앞선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새로운 사회와 시대 상황에 맞는 인권개념의 논의와 수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교수는 불교 기반 인권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불교 기반 인권을 △관계 연관적 인권 △구성적 인권으로 정리했다. 관계 연관적 인권은 인권적을 총체적으로, 타자 배려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구성적 인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인권 보장 내용과 주체도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교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처한 플랫폼 노동 조건을 이해한다면, 배달 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이해한다면 서로의 안전권은 실재하는 인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지속적으로 상호 의존으로 연결된 중중무진한 사회구조로부터 도출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찰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문화연구〉 제31호에는 △향곡 혜림의 선사상- 〈향곡 선사법어〉를 중심으로(김방룡, 충남대) △한 · 중 근현대불교의 서양철학 수용과 비판(김제란, 고려대) △지론학파의 법계연기- 돈황 출토 지론문헌 S.4303을 중심으로(이상민, 고려대) △법상종의 사중철체(四重出體) 고찰(박재용,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능가경〉의 불신관(佛身觀)에 대한 고찰- 유가행 유식학파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돈각 스님, 동국대) 등이 수록됐다.

원효부터 인문학 · 사찰음식까지 한번에 배운다

평택 수도사, 제1기 원효아카데미 개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서 13차 강의로
‘동서인문 고전강좌’ 가입비 1만원 무료

원효대사의 생애와 가르침, 깨달음 체험을 위한 참선, 인문학과 사찰음식까지 모든 것은 한번에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가 개설됐다. 심지어 가입비 1만 원에 모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평택 수도사가 원효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제1회 동서인문 고전강좌를 시작한다. 원효아카데미는 기독교세가 강한 평택지역에서 포교 · 전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다. 대중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비를 과감하게 투자해 더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때문에 원효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용 1만 원에, 동서인문 고전강좌 강의 전부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장소는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담아낸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1회 원효아카데미는 총 13차로 구성된다. 이평래 교수, 고영섭 교수, 백승종 교수 등 유명강사진이 포진됐다. 강좌는 4월 1일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 개강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2차 강의는 4월 8일 고영섭 교수의 ‘원효대사 생애와 깨달음’, 3차 강의는 4월 15일 이평래 교수의 ‘원효대사 발심수행장’, 4~5차 강의는 4월 22일과 29일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5월 6일 6차 강의는 오명화 교수가 ‘원효대사 무애무의 이론과 실습’을 다룬다.

7차 강의부터는 사찰음식, 불교와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실용강의가 이어진다. 5월 13일과 5월 20일 적문 스님이 사찰음식 강좌를 통해 깨달음체험관에 전시된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이끌며, 5월 27일과 6월 3일에는 백승종 교수가 ‘도시로 배우는 유럽사’를 강의한다. 백승종 교수는 강의에서 원효대사의 사상과 접목해 유럽사를 비교소개할 예정이다.

6월 10일에는 성일 스님이 이끄는 오도체험, 6월 17일에는 심복사 신성숙 선다회장의 다도체험 강의가 열린다. 이어 6월 24일 마지막 강좌는 강의 소감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강일수가 전체강좌의 2/3 이상일 경우 아카데미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적문 스님은 “무료강의이지만 포교를 위한 결단으로 수준 높은 강사진을 섭외해 쉽게 재미있고 대중성있는 커리큐럼으로 구성했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10)2168-3169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찬불음악 발전 · 전망 고찰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4월 2일 제3회 학술세미나

한국불교 찬불음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4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찬불음악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불교음악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부 세미나는 한명희 불교음악학회장의 ‘호국정신의 선양과 자비사상의 고취는 불교음악학회의 시대적 소임’ 특별기고 강연과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의 ‘찬불음악의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윤소희 학술위원장의 ‘국·시립 합창단의 연주동향과 불교음악- 조사자료와 통계분석’, 손인애 씨의 ‘한국 불교음악 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기독교음악 교육과의 비교를 통해’가 발표된다.

이와함께 2부에서는 찬불음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불교음악 흥법 성과와 의미’를,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는 ‘불교음악,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하여’를 발표한다. 박천지 불교음악원 총지휘자의 ‘전통음악적 특징을 지닌 신작 찬불가의 선율분석연구’를 봉은국악합주단의 시연과 함께 선보인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불교음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음악과 이론, 연주와 학문이 함께하는 불교음악의 미래를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01집 발간

韓불교 보편 · 특수성 다뤄
4월 차기 회장 선출 공고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가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101집을 발간했다.

이번 101집 특집으로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3-한국불교사상1 · 2’ 주제로 6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들 논문은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수록 논문은 △고구려 승랑의 융합적 사유-중가의와 이교의(조윤경) △유식논사 대현의 성(性)과 상(相) 이해- ‘성유식론학기’와 ‘대승기신론내의략탐기’를 중심으로(이수미) △원효 초기 심식관의 사상적 배경과 회통논리-유식과 유심 회통을 중심으로(황정일) △신라 정토신앙의 현신왕생설 재검토- ‘삼국유사’ 욱면비염불서승 · 광덕엄장 · 포천산오비구를 중심으로(법우 스님) △고려시대 법화삼매참법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백련사계와 묘련사계의 법화참법을 중심으로(오지연) 등이다.

투고 논문으로는 △‘구사론’과 ‘성유식론’의 명(名) · 구(句) · 문(文) 논의 고찰- ‘구사론기’와 ‘술기’의 주석을 토대로(박재용) △고려 의선의 삼장법사 법호 고찰(계미향)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최두헌) △템플스테이의 연구동향분석-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하원 스님)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4월 29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폐회 직후 열리는 제1차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하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경주박물관 ‘신라 불교조각’ 강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라 불교조각’을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

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신라 불교조각에 대한 8개 주제로 진행된다. 4월 6일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경주 남산 칠불암의 불교미술 △신라의 불교조각과 중국 △밀교계 변화관음보살상 △선도산 아미타삼존불 △신라 불탑과 신중상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강연은 신라의 종교사상을 바탕으로 피어난 불교문화와 다양한 미술작품을 살펴보며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9



▶ 60회 예고
수시마 일행은 안개가 짙은 새벽에 빠딸리뿌뜨라로 떠난다. 환송식을 생략한 채 조용히 탁실라를 떠난다.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도 함께 간다. 그러나 수시마 부왕은 옛 꾸루국 야무나강 상류에서 친위대 조장에 의해 독살을 당한다.

수시마, 마침내 탁실라를 떠나다

소요를 일으킨 대다수 성민들은 밀이나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다. 상인들은 소요에 가담하지 않았다. 상인들이 나서면 소요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마련이었다. 상인들 중에는 용병과 사병을 거느린 부호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수시마 부왕은 이틀이 지나도 성민들의 소요가 잦아들지 않자 불안해했다. 긴급회의는 수시로 열렸다. 수시마 부왕이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 성민들을 만나 보았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싶지만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하오."

"누군가가 선동한 것 같습니다. 성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더 지켜봤다가 군사를 투입해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건 대장이 원치 않았소."

"부왕님, 이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특사가 군사개입을 반대했다.

"성민들이 왕궁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에는 제가 성민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특사께서 그렇게 해주시오. 대왕님 명을 받았으니 하루 빨리 빠딸리뿌뜨라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초조하오."

특사가 군사개입을 반대한 까닭은 자신이 성민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성민들이 다치지 않아야 했다. 수시마 부왕의 발을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특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사상자가 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특사는 부왕과 성민들 간에 접점을 찾아 타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왕님이시여, 성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사는 이곳에서 2년을 살았고, 그동안 성민들을 접촉해 오면서 나를 보좌했으니 분명 성과가 있을 것 같소."

특사는 친위대 조장과 함께 왕궁을 나섰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친위대 군사가 십여 명 따랐다. 왕궁 정문을 나온 뒤 친위대 조장이 물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성민들을 설득하겠소. 세금을 감면해 주되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겠소."

"성민들이 믿겠습니까?"

"부왕님께서 직접 빠딸리뿌뜨라로 가신다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오. 부왕님께서 움직이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특사님 계책은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려는 부왕님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소. 하지만 사정이 바뀌었소. 부왕님의 귀국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오. 대왕님 건강을 걱정하는 부왕님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소."

"부왕님이 가신다면 왕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칼라따까 수상님의 비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지요. 대왕님의 심중은 수시마 부왕님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수시마 부왕님께서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계실 때 모든 왕자님들이 대왕님과 친위대장이 보는 앞에서 수시마 부왕님께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왕님이 가신다면 왕권은 수시마 부왕님께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친위대 조장은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다. 특사도 칼라따까의 편지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수십 명의 왕자들을 불러놓고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것은 왕위를 수시마 부왕에게 물려주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성민들의 소요를 가라앉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시마 부왕이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는 것이오. 또한 왕위이양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시마 부왕을 빠딸리뿌뜨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오. 자, 그대는 어찌했으면 좋겠소?"

칼라따까의 심복인 특사와 친위대 조장은 진퇴양란에 빠지고 말았다. 수시마 부왕이 빠딸리뿌뜨라로 간다면 왕권은 아쇼까 부왕에게서 아주 멀어져버릴 터였다. 수시마 부왕을 옹립하려는 친위대장과 수시마 부왕비가 모든 왕자들과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빈두사라왕의 마음이 오래 전부터 수시마 부왕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특사는 동문 쪽으로 갔다. 상인들 저택들이 있는 언덕을 지나면 농민들이 모여 사는 거리가 나왔다. 상인들은 정원이 딸린 붉은 벽돌집에서 거주했고, 농민들은 흙벽돌이나 갈대를 얹힌 움막 같은 곳에서 옹색하게 살았다. 광장은 남문과 동문이 보이는 지점에 있었다. 광장에는 농민 수십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농민들은 특사에게 호의적이었다. 성민 유지가 특사를 맞아주었다. 특사와 그는 밤에 자주 만나 술을 마시곤 했던 친구나 다름없었다.

"특사시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부왕님께서 빼딸리뿌뜨라 왕궁으로 가시어 대왕님의 허락을 받아오시겠다고 하오."

"감면을 해주신다는 말이오?"

"그렇소. 다만 빠딸리뿌뜨라 왕궁으로 가셨다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그거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소."

성민 유지는 부왕이 세금감면을 위해 먼 길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감격한 듯 농민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여러분, 부왕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부왕님께서 대왕님의 허락을 받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와아와아!" 성민들이 북을 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특사는 벌레 씹은 얼굴을 했다. 성민 유지가 특사를 보고 말했다. "특사님은 기쁘지 않소?"

"그대는 웃지만 나는 울고 있소."

"무슨 말씀이오?"

특사는 끝내 농민 출신인 성민 유지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오히려 성민 유지에게 투덜거렸다.

"나는 성민들이 농사를 잘 지었을 때 세금을 더 내겠다고 주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아마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오."

그래도 특사는 소요가 끝날 것 같아서 안도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농민들이 고맙기조차 했다. 관계가 껄끄러운 상인들과 부딪쳤다면 소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알 수 없었다. 상인들은 순진한 농민들에 비해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했다. 그러니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힘들었다. 상인수장은 특사보다는 부왕만 상대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성 밖으로 추방할 수도 없는 무리가 상인집단이었다.

그날 오후, 특사는 왕궁으로 돌아와 수시마 부왕에게 보고했다. "부왕님, 성민 유지를 만나 집회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특사가 나서니 바로 해결되었소. 그동안 성민들과 유대해 왔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소."

"부왕님, 과찬이십니다."

"그럼 나는 내일 바로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하겠소."



"예, 친위대 조장이 부왕님을 호위할 것입니다."

"친위대 조장이 나를 호위한다고 생각하니 믿음이 가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친위대 조장이 특사의 관사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탁자에 마주앉았다. 하인이 뜨거운 짜이 두 잔을 가져왔다. 특사가 짜이를 마시지 않고 말했다.

"부왕님께서 내일 출발하니 준비하시오."

"결국 부왕님을 호위하는군요. 칼라따까 수상님은 저의 은인인데 뵐 면목이 없습니다."

"부왕님이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나도 난감하기만 하오."

"특사님, 계책이 없겠습니까?"

"부왕님께서 가신다는데 내가 어찌 막겠소. 며칠 동안은 소요를 핑계로 막았지만 이젠 이도 저도 못하게 됐소.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소. 궁하면 통하는 법인데 말이오." 그러나 특사는 좀 전에 생각해 둔 계책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친위대 조장이 특사의 마음을 간파하고는 말했다.

"궁하면 통하신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들었소?"

"특사님,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칼라따까 수상님을 위해서는 무슨 위험한 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정말이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계책을 쓸 수밖에 없소."

특사의 얼굴이 기름불 불빛에 번들거렸다. 마치 짜이를 마신 것이 아니라 독주를 들이킨 것 같은 얼굴이었다. 친위대 조장은 특사의 얼굴을 보고는 움찔했다.

"최악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특사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독살하는 것이오."

"저더러 부왕님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부왕님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이 걸렸소."

친위대 조장이 물었다.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입성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쇼까 부왕님을 옹립하려고 했던 우리 모두는 친위대장 손으로 처형될 것이오. 칼라따까 수상님, 라다굽따 제관님, 나, 친위대 조장까지."

"반대로 부왕님께서 입성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쇼까 부왕님께서는 왕위를 잇고 그대는 친위대장이 될 것이오. 수시마 부왕님께 충성맹세를 했던 왕자님들도 모두 다 지옥 같은 우물감옥에 던져져 죽을 것이오."

그제야 친위대 조장이 결심했다.

"부왕님을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마우리아왕국을 위해서 제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행운을 비오." 특사가 탁자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거무죽죽한 빛깔로 변색한 조그만 은갑이었다. 장미 장식이 새겨진 은갑에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조금만 삼켜도 살아남지 못하는 독약이오."

"특사님, 빠딸리뿌뜨라에 가서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부왕님이 오시는 도중에 음식을 드시다가 급사했다고 보고하시오. 칼라따까 수상님이 뒷일을 봐줄 터이니 문책당할 일은 없을 것이오."

은갑을 받아든 친위대 조장은 일어서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살기가 온몸을 스치는 것 같아 몸서리쳤다. 특사가 친위대 조장 등 뒤에서 말했다. "부왕님을 마지막까지 잘 모시시오. 마음이 아프지만 마우리아왕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소. 장례는 예를 갖추어 정중히 지내주시오." 밖은 동굴 속처럼 컴컴했다. 초저녁에 잠깐 나타났던 초승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친위대 조장은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막사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어디선가 개들이 어둠을 물어뜯듯 컹컹 짖어댔다.

다음날 새벽, 수시마 부왕과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는 탁실라 성을 조용히 벗어났다. 수시마 부왕의 뜻에 따라 일부러 행사를 생략했다. 평소와 달랐다. 부왕이 장도에 오를 때는 악대가 도열해서 연주하고 성민들이 모두 나와서 환송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의 기병들은 수시마 부왕이 탄 말을 앞뒤에서 호위했다. 수시마 부왕 일행은 새벽안개 저편으로 사라졌다.〈계속〉

불기 2566년 건학76주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인격 완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이 사 초격스님 성일스님 도일스님 성진스님 신용철 박민영 윤덕호
감 사 혜공스님 손오제
광동고등학교 교장 김일동
의정부광동고 교장 김중철
광 동 중 학 교 교장 정홍권
법 인 사 무 국 장 정용수
수 석 교 법 사 권준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광동1길 10
법인사무국 : 031-572-0559
설립자 윤허 대종사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❻ 선승의 출가 ②



▶한줄요약
선승의 출가로 귀결되는 선승 출가담에서 '태몽-탄생-유년기의 특별한 행실-출가' 등의 서사소가 모두 갖춰지고 서로 긴밀히 연결됐다.

완결된 출가담…선승의 태몽·탄생·유년기

3. 완결된 출가담과 삼생성불(三生成佛)

선승의 출가로 귀결되는 선승 출가담에서 '태몽-탄생-유년기의 특별한 행실-출가' 등의 서사소가 모두 갖춰지고 서로 긴밀히 연결됐다.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니 출가담으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승의 생존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 선승: 도의(道義 ?~825), 진감(眞鑑 774 ~ 850), 적인(寂忍 785~861), 무염(無染 801~898), 체징(體澄 804~880), 범일(梵日 810~889), 지증(智證 824~882), 징효(澄曉 826~ 900), 도선(道詵 827~898), 순지(順之 830~895), 낭공(朗空 832~916), 진경(眞鏡 855~923), 낭원(朗圓 854~930), 여엄(麗嚴 862~930), 형미(逈微 864~917)

고려 선승: 경보(慶甫 868~947), 혜진(惠眞 869~958), 경유(慶猷 871~921), 긍양(兢讓 878~956), 법인(法印 900~975), 원공(圓空 930~1018), 적연(寂然 952~1014), 혜소(慧昭 972~1054), 지광(智光 984~1067), 혜덕(慧德 1038~1095), 원경(元景 1045~1114), 의천(義天 1055~1101), 원각(圓覺 1107~1174), 일연(一然 1206-1289), 원오(圓悟 1215~1286)

조선 선승: 무학(無學 1327~1405), 수미(守眉 조선전기), 휴정(休靜 1520~1604), 유정(惟政 1544~1610), 학린(學璘 1575~1650), 명조(明照 1593~1661)

근대기 선승: 몽월영홍(夢月泳泓 1870년경), 금오(金烏 1896~1968)

이상의 선승들이 출가하기까지 그 사연을 담은 출가담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 구조가 완성되고 그것이 다음 선승의 출가담에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된다. 그중 '태몽'과 '유년기의 특별한 행실'이 핵심 서사소로 작동했다. 이는 가볍게 지나칠 현상이 아니다. 선승이 입적하면 제자들은 스승과 관련된 자료를 엄선하고 행장을 모아 임금에게 바친다. 임금은 평소 존경했던 선승의 가르침을 길이 전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고자 한다. 임금은 당대 최고 문인에게 비문 작성을 명했는데 그때 그 자료와 행장까지 문인에게 전한 것이었다. 그러니 문인에 의해 작성된 비문 어느 한 구절도 허투루 선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태몽은 선승의 전생이 수행승이거나 보살이었음을 암시한다.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을 거듭하는 목숨 건 수행을 해야 하고 보살도를 완성하는 데도 몇 생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것은 또한 신라에서 고려까지 이어진 화엄 삼생성불론(三生成佛論)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지증(智證)이 의상의 대표제자인 범체(梵體)로부터 〈화엄경〉을 배우다 선승이 되었고, 그 외 적인(寂忍), 무염(無染), 도윤(道允), 도선(道詵) 등도 화엄을 공부하다 선종으로 옮겨간 사실은 화엄과 선종의 긴밀한 관계를 말해준다.

삼생성불론은 삼생에 걸쳐서 성불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생은 견문생(見聞生)으로, 과거세에 노사나불을 친견하고 보현보살의 법문을 들어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종자를 얻는 자리이다. 이것은 전생의 선근(善根)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생은 해행생(解行生)으로서, 지금 이생에서 〈화엄경〉을 믿고, 원돈신해(圓頓信解, 원만한 화엄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여 일순간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의 법문을 듣고 원행(圓行)을 닦는 자리이다. 해행생은 첫 번째 생인 견문생의 결과로 얻은 현재의 삶이기도 하다. 세 번째 생은 증입생(證入生)으로, 내세에 깨달음을 이루어 불과(佛果, 부처의 경지)에 드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삼생을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일념(一念) 속에서 일어나는 동시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하근기의 차원이고 후자가 상근기의 차원이라고도 한다. 또 삼생성불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일생성불, 이생성불, 일념성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고 한다. 신라에서 시작된 화엄사상을 갈무리한 균여대사(均如大師, 923~973)는 삼생성불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삼생이 선후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출가담 다음 출가담에 영향 줘
태몽·유년기의 행실 핵심작용
보살도 완성에 다생 필요 암시

선승 출가담이 태몽 요소를 통하여 선승의 전생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삼생성불론이 밝혀준 성불의 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선승은 전생의 선업을 통하여 이생이나 다음 생에 성불할 가능성을 도드라지게 갖게 되었다.

선승의 부모는 어느새 자라난 자기 자식이 출가를 결심하고 부모 곁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자식의 전생과 잉태와 관련된 태몽을 다시 떠올린다. 태몽은 부모가 자식의 출가를 허락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선승의 출가는 태몽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암시되고 지지되는 셈이다.

4. 유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

선승이 유년기에 보여주는 특별한 행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성찰로 우리를 이끈다. 어린 무염(無染, 801)은 반드시 가부좌를 하며 앉았고 사람을 만나면 합장을 하였다. 벽에 불상을 그렸고 모래로 탑을 쌓았다. 현욱(玄昱, 788)은 말라가는 개울에 물고기가 버둥대는 걸 보면 물을 길어다 부어주었다. 석초(釋超, 912)는 오신채 냄새를 맡지 못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속세를 벗어나려는 생각만 했다. 원응(圓應, 1052)은 하루 한 번 이상 젖을 먹지 않았고 오신채가 든 음식도 먹지 않았다. 탄연(坦然, 1070)은 일찍부터 속세를 벗어날 뜻을 간직했고 인생살이를 뜬구름처럼 보았고 명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다. 어린 징엄(澄儼, 1090)은 아무리 귀한 장난감을 앞에 놓아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어린 지인(之印, 1102)은 오신채와 육류를 싫어했다. 종린(宗璘, 1127)은 부모와 불상을 볼 때마다 공손히 예를 올렸고 음식에 조금이라도 누린내나 비린내가 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원감(圓鑑, 1226)은 속세를 벗어나려는 마음뿐이었다. 원각(圓覺, 1379)은 나면서부터 울지 않았다. 아버지가 별세한 뒤로는 묵언하다가 15살 되던 날 아침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는 갑자기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크도다. 태양의 정기여!"라고 외친 뒤에야 비로소 말을 하고 웃음을 지었다. 21살에 장가를 들었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흥미를 전혀 갖지 못했고 욕심을 뜬구름처럼 버렸다. 유정(惟政, 1544)은 개울에서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들고 돌을 세워 부처님으로 삼았다. 꽃을 따고 밤과 도토리, 산과일 등을 주어 공양을 올렸다. 모은 밤을 주고 어른들이 잡은 자라를 사서 물에 놓아주었다. 아이들은 주운 밤을 어린 유정 앞에다 모았는데 그러면 유정은 아이들에게 밤을 똑같이 나눠 주고 자기는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용성 스님 진영.

근대기 선승들의 유년기도 다르지 않다. 용성(龍城, 1864)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터에 가곤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낚아 올린 물고기를 몰래 물속으로 다시 놓아주었다. 자기 집 머슴의 동생이 병이 들자 자기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돌봐주었다. 몽월 영홍(夢月泳泓, 1870년경)은 비린 것을 피했고 언제나 조용한 곳으로 혼자 가서는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구하(九河, 1872)는 불쌍한 고아들을 만나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이나 의복을 아낌없이 주었다. 가축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광경을 볼 때는 물론 꽃이나 나무를 꺾는 것만 보아도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물을 흘렸다. 운봉(雲峰, 1889)은 13살 때 부친을 따라 팔공산 은해사로 갔다가 불상을 바라보고는 환희심과 동경심을 억누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했다. 어린 고암(古庵, 1899)은 산만 바라보아도 기뻤고 스님만 보면 따라가고 싶어졌다. 어린 청담(靑潭, 1902)은 짐승을 잡는 것을 보면 눈을 감고 마구 울어댔고, 물고기의 배를 가르는 것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못 견뎌했다.

이 같은 유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은 근대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 어린 선승들은 불교적 상징을 만들어 공경을 다한다.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이 특별하다. 욕심이 전혀 없었고 속세로부터 떠날 마음을 일찍부터 가진다. 요컨대 어린아이인데도 다른 존재들만 위하고 걱정했지 자기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은 전혀 없다.

출가한 수행자에게도 애욕을 끊는 것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원각경〉 '미륵장'은 애욕을 끊는 것이 수행의 출발이라 하고, 일체중생이 갖가지 은애(恩愛)와 탐욕(貪欲)으로 말미암아 윤회하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갈(愛渴)을 제거하라고 가르친다.

선승이 이승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생성불이나 삼생성불의 목표와 관련될 수 있지만 아울러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정신과도 연관이 있다. 유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은 그 전생이 애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뽑아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하지 않고 이승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대자비력(大慈悲力)과 대서원력(大誓願力)으로써 동사섭(同事攝, 중생과 생사고락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돕고 구제함)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보살이 잠시 부모의 애욕에 편승하고 모체의 태를 빌려서 생사세계에 들어왔지만, 애욕의 뿌리가 자신에게는 추호도 없는 것이다. 선승의 이런 점은 그 부모의 마음 상태와도 심각하게 비교된다.

어린 선승들이 보여준 '애욕 근절'과 '세상 명리 버림'은 세속 애욕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나는 어린 진감(眞鑑)처럼 '서쪽 하늘을 향해 꿇어앉아 해가 저물어도 일어날 줄 몰랐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지금은 또 어떠한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스님! 커피한잔 주시면
아주 작은 염불에도 엄청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로 화답하는 디지털 소리 체험을 드립니다.

주의 : 한국법당 시설들 거의 중국, 베트남 심지어 메이커를 지워버림
본품 : 100% MADE IN KOREA 특징 : 고가제품, 고장없음, 소리월등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❻ 몸에 쇠못 박아 백성 구한 왕



▶ 한줄요약
염부제 큰 나라의 왕인 비릉갈리는 석존의 전생으로 구도열이 남달랐다. 그는 깨달음을 증득한 노도차의 법을 듣기 위해 스스로 몸에 천개의 못을 박는다. 사람들은 만류했으나 "법을 깨달아 백성을 증득하겠다"는 그의 간절한 원력을 막을 수 없었다.

1천여 고통 맞선 전생 석존 구도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팔리어로 기록된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 문헌 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채집된 이야기를 모아서 한역한 '한역본'으로 나눌 수 있다. '팔리어본'은 초기의 불교 상황,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의 수난사, 각 민족의 기원 설화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한역본'은 팔리어본 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 중에 그 지역의 험난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한역된 본생담 〈현우경(賢愚經)〉 〈육도집경(六度集經)〉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보살본행경(菩薩本行經)〉 〈출요경(出曜經)〉 등의 경전에는 팔리어본 보다 보시와 희생의 극적인 장면이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석가모니의 전생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돼 있다. 현존하는 한역본이 본생담의 전체를 한역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선택과 번역의 과정에서 현지의 이야기가 차용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쩌면 본생담들은 당시의 주변 환경과 불교 신앙을 담고 있는 타임캡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찬자가 수백의 본생담 중에서 선별하여 번역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시의 지역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한역된 경전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시와 희생을 기록한 전생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우연히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의 상이 떠올랐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아 인간에게 속죄와 구원을 가져다주었다는 희생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당시 로마 지역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죄인을 나무 기둥에 못 박는 것이어서, 예수 또한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상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이므로 예수의 고난보다 최소한 500년은 오래 됐을 이 이야기에서는 대여섯 개의 못이 아니라, 천 개의 못이 석가모니의 전생 인물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퍼붓는다. 이와 관련해서 북위(北魏)시대 445년에 고창(高昌, 오늘날 투르판)에서 혜각(慧覺)이 한역한 〈현우경〉 '범천청법육사품(梵天請法六事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① 쿠차 키질 석굴 38굴 천정 부분 벽화 〈비릉갈리왕 본생도〉로 4~5세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돈황 막고굴 257굴에 있는 〈비릉갈리왕 본생도〉로, 북위 시기에 조성됐다.

道心 높았던 석존전생 비릉갈리왕
法을 얻기위해 1천 쇠못 몸에 박아
"깨달음 증득해 백성 구제 하겠다"
중생 위한 자비·구도 보인 본생담

부처님께서 지나간 세상에 염부제에서 큰 나라 왕이셨는데, 이름은 비릉갈리(毘楞竭梨)였다. 왕은 큰 자비심이 있어 백성을 항상 자식처럼 보살폈으며, 바른 법을 좋아하여 온 나라에 명을 내렸다. "누가 나를 위해 바른 법을 말해 주겠는가? 법을 알려주는 자에게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 주리라"라고 왕이 말하자 노도차(勞度差)라는 바라문이 궁 앞에 와서 말하길 "제게 큰 법이 있으니, 듣고자 하면 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법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것으로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한 것입니다. 만일 왕의 몸에 천 개의 쇠못을 치게 하면 설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노도차와 약속한 왕은 하루 8만 리를 달리는 코끼리를 통해서 노도차의 설법 소식을 온 염부제 안에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지금도 어진 왕의 은덕으로 부족함이 없어 편히 살고 있으니, 왕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몸에 천 개의 쇠못을 치게 하지 말라며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왕은 불도를 구하여 부처가 된 뒤에는 지혜의 날카로운 칼로 너희들의 번뇌와 고통을 끊어 버릴 것이니, 도심(道心)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도차에게 목숨이 먼저 끊어져 법을 듣지 못할까 두려우니, 은혜를 베풀어 먼저 설법한 뒤에 못을 쳐달라 부탁하였다.

그때 노도차는 "일체는 모두 덧없는 것이어서 태어나는 것은 모두 다 괴로운 것을… 모든 법은 공하여 실체가 없거니 그것은 진실로 내 것이 아니네"라는 게송을 마치고 곧 왕의 몸에 천 개의 쇠못을 쳤다. 이를 본 제석천이 왕에게 무엇을 구하려 이러한 고통을 겪느냐 묻자, 이 공덕으로써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왕이 서원하기를 '만일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내 몸은 본래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맹세하자 몸은 곧 회복되었다.



그림③ 중국 산서성 고평 개화사 대웅보전 서벽에 그려진 〈비릉갈리왕 본생도〉로 북송시기에 그려졌다. 사실적 표현 기법이 인상깊다.

위의 이야기는 수많은 보시와 희생을 거듭하던 석가 전생의 어느 생에서 비릉갈리왕으로 태어나 자신의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을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해서 몸에 기꺼이 천 개의 못을 박고 그 대가로 불법을 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형벌은 생각만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힘든데, 그만큼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 깊이 전달이 된다.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가장 이른 사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庫車)지역 키질(克孜爾) 석굴 38굴의 천정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굴은 키질 석굴의 발전기인 4~5세기경에 조영된 석굴로서, 석굴 전체에 황금보다 비싼 라피스라줄리(靑金石=ultramarine)와 황금, 공작석(孔雀石, malachite) 등의 천연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여 본생도와 불전도(佛傳圖)를 벽면에 도해하였다. 38굴의 천정에는 중앙의 천상도(天相圖)를 기준으로 좌우 각 20여 종류 총 40여 종류의 본생도가 그려져 있다. 키질석굴의 본생도는 대략 사면이 30㎝ 정도인 마름모 형태의 공간에 각 본생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 하나만을 표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8굴의 〈비릉갈리왕 본생도〉에는 나무 아래에 합장한 비릉갈리왕이 서 있고, 그 앞에 노도차가 오른손에 든 긴 못을 왕의 왼쪽 옆구리에 찔러넣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그림①)

그림을 보는 우리는 잠시 후 비릉갈리왕이 서원을 이루어 법을 얻고, 온몸에 천 개의 못을 치기 전으로 돌아온다는 결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안타깝고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왕이 겪어야 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크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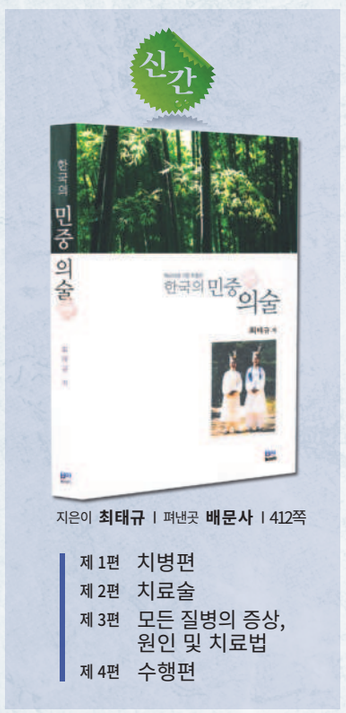
그리고 키질 석굴 38굴의 그림보다 약 100년 후 북위 시기(北魏, 386~534)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敦煌 莫高窟) 257굴 서벽의 〈비릉갈리왕 본생도〉는 세로 80, 가로 74㎝ 직사각형의 화면 중앙에 반가좌를 취한 비릉갈리왕과 왕의 오른쪽 가슴에 못을 박는 인물, 이 장면을 보고 놀라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괴로워하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의 상부에는 울음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제석천과 천제(天帝)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그림②)

북송(北宋) 시기인 1064년경 건축된 산서(山西) 고평(高平) 개화사(開化寺) 대웅보전(大雄寶殿)의 서벽에 그려진 〈비릉갈리왕 본생도〉는 사실적인 표현법으로 한눈에 그림의 주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전각의 의자에 합장을 취하고 앉아 있는 비릉갈리왕의 목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에 빈틈없이 빼곡하게 쇠못이 박혀있는 모습이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에 노도차로 보이는 인물이 오른손에 설법인을 취하고 왕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궁인들과 신하들이 왕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온몸에 못을 치고도 고통의 내색조차 비치치 않고, 흐트러짐 없이 눈을 반쯤 감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쩌면 비릉갈리왕은 노도차의 설법을 듣고, 이미 불법을 구한 뒤여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그림을 그린 화사(畫師)는 건물이나 인물의 표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릉갈리왕의 속마음 또한 이렇듯 잘 묘사하였을까 감탄스러울 정도이다.(그림③)

비릉갈리왕에게 노도차가 설법한 큰 법이 설령 범부인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천 개의 못을 살아있는 나의 육신에 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중생의 해탈을 위해 한두 개도 아닌 천 개의 고통과 맞바꾼 석존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저 가르침을 따를 뿐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박원자의 母情佛心 29 혜총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어릴 적 속가에 있으면 단명한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가 출가를 시켰다. 11살 어린 아이였던 혜총을 품은 건 한국불교 계맥 중흥조 자운 율사였다. 율사의 품에서 큰 혜총 스님은 40년 동안 시봉하며 율사를 모셨다. 자운 율사는 혜총 스님에게 출가 생활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였다.

나를 스님으로 만든 어머니, 자운 노스님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어머니가 두 분이다. 낳아주신 어머니와 출가자로 성장시켜준 자운 율사(1911~1993)가 그분들이다. 자운 스님은 한국불교 계맥의 중흥조로 일컬어진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가한 조계종 출가자 가운데 스님에게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다. 종단의 전계대화상을 지내며 계단을 정비해 계율에 기반한 수행풍토를 확립시킨 뛰어난 수행자다.

마냥 뛰어 놀 나이인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도사로 들어왔다. 집에 오시던 한 스님께서 속가에 살면 서른을 넘기기 어려우니 사찰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자운 스님에게로 간 것이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스님께서는 사찰에 살면 명을 때우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은은하게 들리던 염불소리며 스님들이 푸근하게 느껴졌던 터라 잘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시원찮은 자식이지만 잘 길러서 단명을 면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경상도 충무 출신의 불심이 강한 분이었다. 원만성이라는 불명처럼 성품이 원만하고 쾌활했다. 부산에서 포목가게를 경영할 만큼 생활력도 강했다. 그 후로 3년 정도 절에 찾아오셨지만 속가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출가생활이라고 가르쳤던 자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스레 멀어졌다.

그리고 자운 스님이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다. 당시 자운 스님은 통도사 한주로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저녁나절이 되자 자운 스님께서 3000배 참회의 절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년이 물었다.

"스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3천배를 하라고 하세요?"

"절을 하면 큰 복을 짓게 되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밤새 절을 했다. 통도사 큰법당(적멸보궁)에서 땀을 흠씬 흘리며 홀로 절을 하는 동안 스님이 문밖에서 몇 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느껴졌다. 9시간이 걸린 3000배는 새벽 예불 전에 끝이 났다. 그날 아침, 자운 스님께서 가사장삼을 입혀주시고는 수계를 해준 다음 바로 보살계를 주셨다. 소년이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스님이 되러 온 게 아니고 명을 때우겠다고 왔는데 스님이 되었네요? 어렸을 때도 절에 가면 고향에 온 것 같고 법당 부처님도 좋고 염불하시는 스님들도 좋았는데, 이렇게 스님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1953년 음력 4월 15일이었다. 어느덧 70년이 흘러 여든 살이 된 혜총 스님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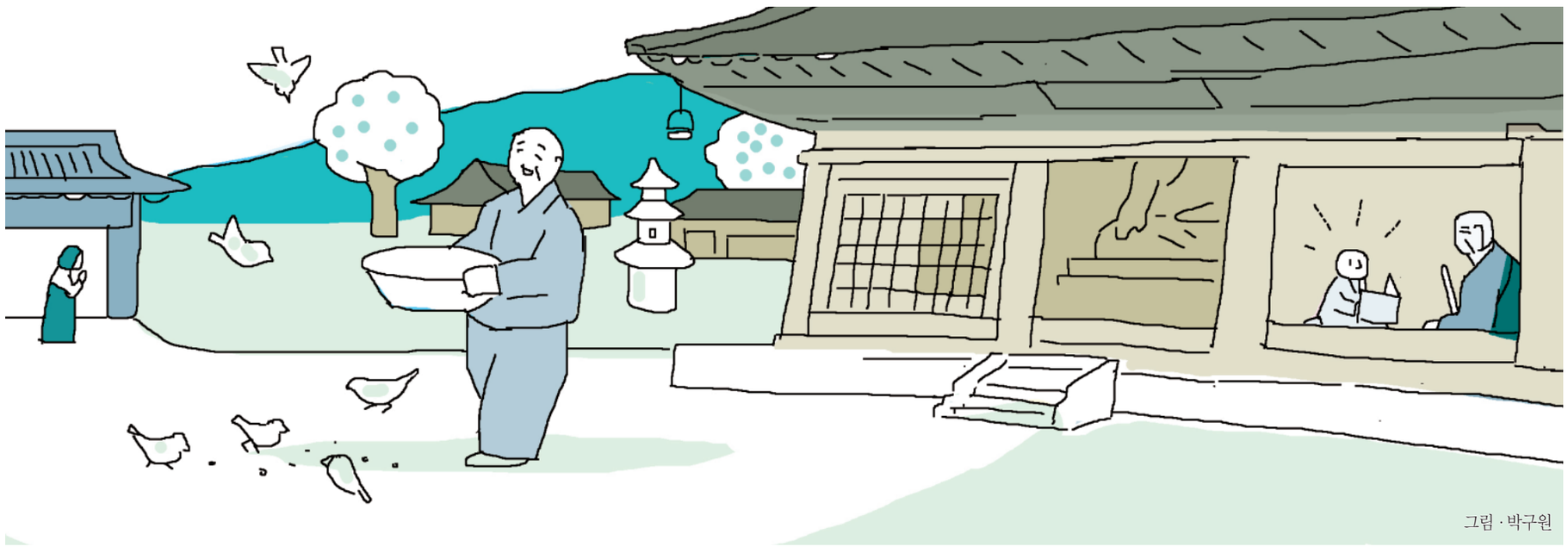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룻밤 사이에 스님이 되었고 자운 스님을 시봉하게 된 거예요. 스님은 제 의견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저를 당신의 맏상좌인 보경 스님을 은사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큰스님이 제게 노스님이 되었죠. 편안한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수계하고 난 뒤에 큰스님과 손가락을 걸며 여든 살까지만 사시라고, 그때까지 제가 모시겠다고 했죠. 그래, 고맙다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희한하게도 딱 약속처럼 되었어요. 여든 넘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시봉을 했으니까요."

마흔세 살의 율사 스님은 방금 수계한 명랑하고 싹싹한 11살의 사미에게 '광명진언'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진언' '아미타불종자진언'을 써주면서 외우라고 했다. 진언을 외우고 나자 다음엔 〈화엄경〉 약찬게과 〈천수경〉을 외우게 했다. 노스님은 천자문을 가르치고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쳤다. 노스님이 선창을 하면 소년 사미가 후창을 했다. 그렇게 목소리가 닮기 시작했고,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면서는 봄볕에 새싹이 솟아나듯 신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따뜻함으로 품어주시는 노스님께 부모님보다 더 깊은 정을 느꼈다. 노스님은 조어장부(調御丈夫)와 같은 분이었다.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알아서 그 장점을 키워주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불가에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은 대중공사를 통해서 타이르고 바꿔나가게 했다. 옷매무새, 걸음걸이에 대한 세밀한 부분부터 취침시간을 잘 지킬 것과 예불, 울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 등 출가생활에 대한 기초를 세밀하게 가르치셨다. 지적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단 한번으로 끝냈다. 40년 동안 모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노스님이 화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운 스님의 하루 생활은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11살 출가한 어린 사미 보듬은
韓불교 계맥 중흥조 자운 율사
혜총 스님에겐 父母 같은 존재
40년 시봉… 자비 · 수행 배워
"스님 모신 것이 인생 모든 것"

부처님을 예경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루 여섯 번 행하는 육시(六時) 예불을 하셨다. 하루에 한 때 점심만 드셨고, 평생 헌식을 거르지 않으셨다. 점심을 드실 때 밥과 찬을 떠서 물을 부어놓았다가 오후 4시가 되면 염불을 한 다음 헌식돌에 올려놓았다. 언제나 정확히 그 시간 그 자리에 계셨다. 새가 날아와 그 음식을 쪼아 먹고 개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를 것을 보면서 어린 사미는 자비심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출가란 자타(自他)가 불이(不二)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러한 수행자의 장엄한 일상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가슴에 금빛으로 스며들었다.

한 번 책을 보시면 밤낮 구분이 없도록 열중하셨다. 공양 때와 울력할 때를 제외하곤 책만 보셨다. 어느 날 방청소를 해드리다 보니 책상 위에 삼국지와 수호지가 놓여있었다. 책을 들쳐보니 순한문으로 된 원서였다. 아니 왜 스님이 불경을 읽지 중국 소설책을 읽으실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유를 물었다.

"얘야, 나는 불법에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삼국지와 수호지와 같은 책에도 세상의 지혜가 다 들어있구나."

마음 속 깊이 묻고 마음 속 깊이 대답했던 그날 '성불한다고 하더라도 옛 것을 떠나지 않고 출발한 그 자리로 환지본처 하는 것이 조사들의 수행'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린 사미는 〈화엄경〉을 읽는 노스님께 또 물었다.

"젊으셨을 때 〈화엄경〉을 다 봐서 마치셨을 텐데 왜 또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학인일 때 〈화엄경〉을 보는 것과 지금 〈화엄경〉을 보는 것이 다르구나."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 의아해하는 어린 사미에게 43세의 율사가 친절히 말해주었다.

"어릴 때 읽는 경과 성숙한 후에 보는 경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린 사미는 훗날 알았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뜻을 관조해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노스님이 자신의 뜻을 부처님의 뜻과 겨눠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어린 사미는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갔다. 그러는 동안 노스님의 음성과 걸음걸이를 닮아갔다. 그러자 주위에서 다들 '제2의 자운이 나왔다' 고 했다.

"단명을 면하려고 절에 들어오셨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진발심을 하셨나요?"

"자운 큰스님께서 율사이셨잖아요. 자비로우셨지만 원리원칙대로 엄격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큰스님께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나서 '사미율의'를 배울 때 확고부동하게 출가의 길이야 말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구나를 알았죠. 생사를 해결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단명을 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때가 고작 12살이었다는 스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께서도 자운 스님의 시봉을 들면서 출가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셨죠?"

"그렇죠. 자운 스님 곁에 있지 않았으면 중간에 빼갔을 거예요. 30살 때 서울에서 동국대에 다니고 있는데 찾아와서 넌지시 장가들어 가문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제가 단호하게 지금 이 길이 좋다고 말했더니 두 말 않고 가셨어요. 신심이 깊고 참선수행도 하셨으니까 출가의 길이 얼마나 수승한 길인지 아셨겠죠. 가끔 자운 큰스님이랑 제 가사를 지어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셔서 더러 좋은 가사를 얻어 입기도 했어요. 나를 낳아 길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셨으니까 그 이상 더 큰 공양이 있겠습니까."

"11살에 출가하셔서 40여 년 동안 자운 큰스님을 모시고 출가자로 성장하셨으니까 제2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2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셨죠. 40년 세월 동안 스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살았으니까요. 통도사, 표충사, 동화사, 해인사, 감로사 서울 보국사와 보승사, 범어사에 사실 때 모시고 살았죠. 자운 큰스님을 40년 동안 모신 것 자체가 승려생활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입적하시고 나서 어디 주지를 하고 포교원장 등 다른 일을 한 것은 여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님을 모신 걸로 제 승려생활은 갈무리된 거죠. 그만큼 스님을 존경했고 스님이 바로 부처님이었죠."

"입적하셨을 때 무척 힘드셨겠습니다."

"입적하시기 전, 상심하면서 따라가고 싶어 하는 저에게 서방정토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 일 다 마치고 와서 그때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혜총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숨바꼭질의 놀이일 뿐이라며, 삶의 수많은 길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 만난다고 했던 틱낫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 시대 최고의 율사로 자비의 화신이었던 자운 스님의 모습이 혜총 스님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작가〉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여래만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⑫ 완전한 열반

"아라한은 부처님께 귀의(歸依)하였으나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온갖 것에 대한 행이 없으며 두려워하는 생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나를 해하려 함과 같으므로 아라한은 완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존이시여, 의지할 데를 구하지 않는 이에게 의지하는 것인데, 저 중생들은 의지한 데가 없으므로 가는 데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이고, 공포를 느낌으로 의지할 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라한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辟支佛)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 · 벽지불은 다음 생에 나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일이 있으며, 다음 생에 나는 범행(梵行)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순일하지 못하고, 일이 끝나지 못하였으므로 해야 할 것이 남아 있고, 다른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열반의 세계(涅槃界)와는 거리가 머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오직 여래 · 응(應) · 정등각(正等覺)만이 반열반(般涅槃)에 들 수 있사오니, 온갖 공덕을 모두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온갖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마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에 들 수 있사오니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한량 있는 공덕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마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었사오니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 까닭이며, 아라한 · 벽지불은 생각할 수 있는 공덕[思議功德]만 성취하였지마는 반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었사오니 온갖 끊어야 할 허물을 모두 끊어 버리고 제일가는 청정을 성취한 까닭이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남은 허물이 있으므로 제일가는 청정이 아니지마는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으시어 온갖 중생들이 우러러보게 되어 아라한 · 벽지불 보살들의 경계에서 초월하였사오며, 아라한 · 벽지불은 열반계와의 거리가 멀지마는, 아라한 · 벽지불이 해탈하는 네 가지 지혜의 끝 간 데를 관찰하여 소생하여 쉴 곳[蘇息處]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역시 바로 여래의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며, 아직도 끝까지 이르지 못한 말씀입니다."

대승에서의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乘)의 평가는 이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승만 부인의 이러한 말은 〈법화경〉에서 말한 부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 이승이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생사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대승의 범행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소승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이타원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범행(梵行)이란 수행자의 청정한 행을 말하는 것으로 계행을 잘 지키고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완전한 열반을 얻는 것은 부처님 경지에서 가능한 일이고 성문이나 벽지불은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공덕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불가사의한 여래의 공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승의 수행을 칭찬 격려하면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방편상에서 말씀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곧 부처님의 설법이 수기설법(隨機說法) 혹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듣는 사람의 근기(根機)에 따라 차별되게 법을 설하므로 듣는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한다.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상황 따라 달라 때로는 돈교(頓教)의 법문을 하고 때로는 점교(漸教)의 법문을 하며 어떤 때는 현교(顯教)의 법문을 하며 어떤 때는 밀교(密教)의 법문을 하는 것이다. 또 〈입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말씀으로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국토에 따라 침묵으로 설법을 하고 웃음이나 기침, 하품 등으로도 설법을 하며 눈썹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설법을 한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서원에 의한 보살의 원생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㉟ 관음신앙의 올바른 견해

원생(願生)의 원인(原因)

무아설을 주장하지만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를 통해 외계의 실재를 인정하고 있는 부파불교시대의 〈설일체유부〉에서도 "보살은 발원(發願)하여 악취에 태어난다."고 원생(願生)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파불교의 〈대중부〉에서도 "보살은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원하여 악취에 태어나며, 뜻에 따라 능히 갈 수 있다."고 서원과 의지의 실천으로 원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불교시대와 부파불교시대를 이어온 서원과 원생의 사상은 대승불교시대에 들어오면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의 많은 대보살들이 대거 출현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 등에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수학무학인기품'에 보면 대보살이 원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였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이 세상에 원하여 태어나, 〈묘법연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한다." 중생을 위한 대비심으로 인해 원생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품반야경〉에서도 원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부처님처럼 변신하여, 지옥 속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축생, 아귀 속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한다."

특히 이 경에서는 원생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화신(化身) 사상이 결합된 서원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과 원생의 사상은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생(願生)이 이루어지는 수행의 경지

불자 여러분!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통해 원생할 수 있는 보살지(菩薩地)의 경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8지에 머물 때 5법을 구족하게 한다. 그 중 하나는 '중생에게 상응하는 선근에 따라 몸을 받는 것'이다."고 설한 것처럼, 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살이 수행을 통해 8지보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서원에 의해 원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설명하는 8지(八地) 보살에 관한 내용은 〈화엄경〉 '지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에서는 중생들이 정각을 얻어 부처가 되기 위해 닦는 수행단계는 10신(十信) · 10주(十住) · 10행(十行) · 10회향(十廻向) · 10지(十地) · 등각(等覺) · 묘각(妙覺)의 52위(五十二位)의 수행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8지 보살은 십지(十地)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단계를 경지를 말합니다. 이 8지에 오른 보살은 수행을 완성하여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로 '부동지(不動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깊이 있는 실천을 한다고 해서 '심행(深行)보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8지 보살의 단계에 오른 보살은 세속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 등의 이승(二乘)의 경지로서는 전혀 깨트릴 수 없는 경지입니다. 보살이 수행을 통해 이와 같은 8지보살의 부동지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 원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⑫ 올바른 견해의 경 ②

견해에 움직인 적 없는 마음

"자양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미 생겨난 뭇 삶의 생존을 위하고 다시 생겨나게 될 뭇 삶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가지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적인 자양분, 두 번째로는 감촉의 자양분, 세 번째는 의도의 자양분, 네 번째로는 의식의 자양분이 있습니다. 갈애가 생겨나므로 자양분이 생겨나고 갈애가 소멸하므로 자양분이 소멸합니다. 자양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니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올바른 견해의 경〉

'나'라는 자아의식은 지각하든 지각하지 않든 언제나 특별한 상태의 자양분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태어남'을 반복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많은 태어남을 모르고 있다. 왜 뭇 삶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마도 갈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과 저곳에서 갈애하는 탐(貪)은 그곳이 늪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늪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뭇 삶은 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올 궁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뭇 삶은 자양분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양분을 가지기 위해 갈애하고, 갈애에 집착하고, 더 많은 갈애를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앞에 보이는 '많은, 큰' 것이라는 갈애에 빼앗긴 정신활동을 일으키게 되어,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조사모삼(朝四暮三)이 동일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한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은 갈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만들어 놓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팔정도 앞에 '바른'이라는 단어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다. 이때의 '바른'은 '중도'를 뜻하는 언어이다. 오온이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견지하는 견해를 소멸하고자 하여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때, 그 견해는 소멸하는 것이지, 어느 한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견해란, 어떠한 견해에 움직인 적이 없는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알아차림을 두는 것이다. 만약 그 알아차림이 순일하지 못하다면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움직임 없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갈애를 자양분으로 유지되는 물질, 감촉, 의도, 의식은 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닌, 그 일어남 없는 소멸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양분은 자립으로 완성되는 것이 없고,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을 오온이라고 알고, 그 오온이 바른 가르침을 들어 완성을 이룰 것이라 믿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우주를 가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을 찾는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모른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가 무엇이요?" 하며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사람의 자동차를 보면서 빙긋이 웃을 것이다. 그것은 갈 수 있다고도 못하고, 갈 수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는 자는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버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니 '간다, 못 간다'의 개념을 떠나서, 아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와 십이연기로 오온이 내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다.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악하다는 것 악한 것이 아니네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다는 것 착함이 아니고
'나'라는 상을 가지지 않으면 악하다는 것 악함이 아니네
위치에 따라 전변(轉變)하는 견해 탐을 따라 변하는 욕망일 뿐
바른 견해가 될 수 없고 바른 견해는 위치가 변하더라도
아상을 나라고 말함이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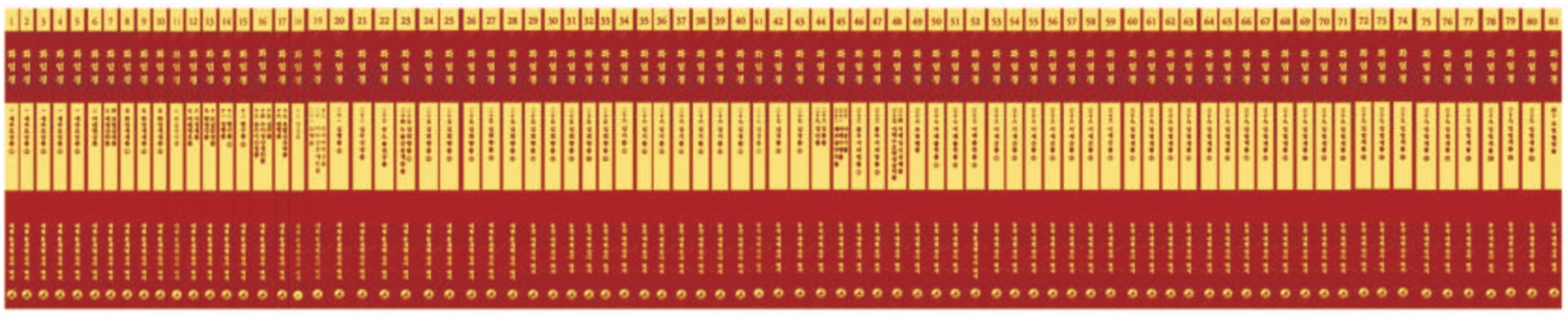
〈(사)여시아문 선원장〉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1호 | 17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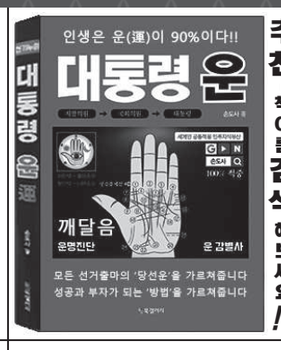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 의 010-6785-1130, 010-5270-8260

자비행법 전수인 모집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 사부대중의 전수인을 00명 모집합니다 ❊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지리산향기암 법장행자

010-2367-0086

주지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역사깊은 중창주 스님이 주지자리를 물려줄 상좌가 없음.
단, 조계종 소속의 30대~50대 건당할 비구스님을 찾고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경북 예천 소백산 내원암

010-6353-1180, 054-653-1180

작법무 연수원

천수바라부터 작법 및 염불, 사물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히 지도합니다.

010-2635-9386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비구니 기도스님,
보살 모십니다.
지리산 작은암자

010-4569-3722

청주 봉은사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5883-2255

공양주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조건은 전화상담

010-8707-3490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산마을 시골집
(법당있음)
강아지 관리하고 기도하실분
건강 수양할 불자분 모십니다.

010-5393-7773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특수불 각 한분씩
(높이105cm, 좌대30cm)
가격절충

010-5353-393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唐秘·作名 神功 ❖

** 경영난 타계 묘수비법 **
백여권 저자 직접전수, 최다목록 무료 검색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 역학수상 동방진인비결

02-907-5858 장애스님 무료 전수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만행 부처님 '옥' 판매 (불사목적)



중국 만행 부처님께서 2009년 2월 직접 새겨서 준 '옥' 입니다. 외국 승려(일반인 포함) 최초로 하사한 것입니다. 불사를 하려고 해서 어쩔수없이 내 놓습니다.

금액 5억원 010-6783-2513 (승려)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1호 | 18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 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멋진 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멋진 법당
- 상가 2층 60평(시설완비) 방2, 주방, 화장실3
- 넓은 옥상, 방음완비
- 민원없고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급) 안 내

- 종교부지 760평 계획관리. 대재 240평
- 감곡 장호원 KT역에서 10분거리
- 대웅전, 종각, 요사채, 휴게실, 찜질방2, 연못, 잔디정원, 요사3동, 산신각, 차고40대, 대형해수관세음보살, 5층석탑, 진사리탑
- 친견하시고 상담하세요
- 매매상담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883-2255
010-5223-37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171)대웅사
- 토지 : 5,824평(종교용지 : 1,690평, 산168-2 : 4,134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할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 절충가)

010-4225-0012

절터 최적지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 면적 : 총680평
- 건평 : 50평
- 가액 : 6억8천만원

010-2315-724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평사리길
- 비어있는 토굴에 비구니스님, 보살님 사실분
  아미타불님의 현행참법
  지장보살님의 점찰행법

유튜브, 법장TV를 참고하세요

010-2367-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융자 3억, 평당 2백30만

010-5309-911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3평, 시설금 7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 도배, 장판, 음향)
- 5년전 인수금액보다 5백만 절상

보문산 지장사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1천만원, 보증금 550만원, 월세30만원
- **비구니스님 환영**

010-3132-9666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
- 유명한 산 칠부능선, 암반에서 1급수 약수가 365일 사시사철 흐름
- 가옥 : 25평(2채) 40평
- 평수 : 8,000평
- 가액 : 16억(주인 직접)
- 물물교환 가능(상가건물시)

010-5343-671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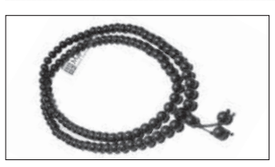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⑥ 분류와 용어

모든 과정에 마음 다한 약차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

차는 일반적으로 찻잎의 형태, 산지, 품종, 채취 시기, 건조 방법, 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있다. 그중 발효 정도에 따른 6대 다류(茶類)가 가장 널리 쓰이는 분류법이다.

똑같은 찻잎이라도 발효 정도에 따라 빛깔, 향기, 맛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크게 백차(白茶), 녹차(綠茶), 청차(靑茶), 황차(黃茶), 홍차(紅茶), 흑차(黑茶)로 나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빛깔을 띤다. 여기에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보이차까지 더하면 7대 다류가 된다.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다. 폴리페놀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폴리페놀옥시데이스(polyphenoloxidase)를 만나면 성분이 변한다. 이러한 과정을 산화 혹은 발효라고 하며 발효 후에는 차의 색깔과 향기, 맛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다.

찻잎을 가열해 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살청(殺靑)이라고 한다. 살청의 청은차의 푸른잎을 의미한다. 살청 전에 발효하는 것을 선발효, 살청 후백차에 발효하는 것을 후발효라고 한다.

아울러 발효 여부와 정도에 따라 불발효차인 녹차, 반발효차인청차, 완전발효차인 홍차, 후발효차인 황차와 흑차로 분류된다. 발효는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6대 다류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는 크게 6대 다류 혹은 7대 다류로 분류한다.

6대 다류(茶類)가 가장 큰 분류법
제대로 만든 차 심신 이롭게 해줘

●불발효차

찻잎을 채취한 뒤 바로 증기로 찌거나 가마솥에 덖어 효소의 산화 작용을 억제한다. 이런방식으로 발효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녹색을 그대로 유지시켜 만든차다. 대표적으로 녹차가 있다.

●반발효차

햇볕 아래서 혹은 실내에서 찻잎을 시들리거나 휘저어 섞어줌으로써 찻잎 속에 있는 성분의 일부가 산화되어 향기가 나게 만든다. 중국 푸젠성과 광둥성, 타이완 등지에서 주로 생산하며, 황차와 우롱차가 반발효차에 속한다.

●완전발효차

찻잎을 반그늘에 잠시 널어두었다가 실내로 옮겨 장시간 시들린다. 그런 다음 찻잎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킨다. 찻잎을 비벼주는 과정을 유념이라고 하는데 완전발효차는 찻잎을 유념하여 잎속에 들어 있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한 후 건조한 차다. 80% 이상 발효시킨 홍차 계열이 여기에 속한다. 열대지방이 주산지인 홍차는 일조량이 많을수록 타닌(tannin) 성분이 강해서 품질이 좋아진다.

●후발효차

녹차를 만들 때처럼 효소를 파괴시킨 후 찻잎을 퇴적시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발효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 후발효차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차다.

〈제다 용어〉

재료를 채취한 다음 위조 ▸ 살청 ▸ 유념 ▸ 훼궤 ▸ 쇄청 과정을 거쳐 1차 완성된 차를 '모차(母茶)' 라고 한다. 다음은 자주 언급할 제다 용어들로 이 과정을 이해하면 약차 만들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위조 - 그늘에서 재료를 시들리는 것을 말한다.

살청 -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의 산화와 갈변이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온에서 덖는 것을 말한다.

유념 - 차의 영양분이 잘 우러나도록 재료를 비벼 상처 내는 것을 말한다.

훼궤 - 유념 후에 뭉쳐진 덩어리를 풀고 털어내는 것을 말한다.

건조 - 솥에서 약한 불에 덖어 수분을 날리는 것을 말한다.

쇄청 - 비타민D가 만들어지도록 햇볕에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잠재우기 - 숙성과 발효 과정을 말한다.

보관 - 완성된 차는 방습제를 넣은 유리병에 담아 밀봉한 후 반드시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햇빛에 두면 갈변과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차는 원물재료부터 시작해서 차를 법제하는 과정과 보관 그리고 차를 우려 마시는 음다법까지 어느 과정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철저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우린 약차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한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⑥ 다양한 소금의 종류

제조법 따라 다른 맛, 다른 효과

"○○○ 수입 소금 때문에 김장김치가 이상하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소금이 다르면 김치 맛도, 장 맛도, 간장 맛도 달라진다. 소금이면 다 같은 소금이지 소금 때문에 음식 맛이 달라진다니 하면서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금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것에 100% 공감 한다. 그리고 소금이 다르면 음식 맛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 또한 다르게 만든다. 그럼 소금은 왜 다를까? 무엇이 소금을 다르게 만들까?

소금은 원료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가공방법에 따라서, 성분도, 모양도, 녹는 속도도 다르다. 같은 바닷물로 만들어도 만드는 방법이 다르면 성분 또한 달라진다.

중국산 천일염과 한국산 천일염을 비교하여 보자. 같은 서해 바닷물로 만들고 방법도 햇볕을 이용하여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식이다. 염전에서 만든다는 것도 같다. 그런데 왜 소금이 다를까? 차이는 염전의 차이, 만드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한국의 천일염은 염전의 소금물의 깊이가 1cm 내외이다. 물이 아주 얕다. 이런 염전이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들어온 바닷물은 침전지를 거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조금씩 농축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축 해수를 마지막 단계인 결정지라는 곳에 집어 놓고 그날의 햇볕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어 낸다. 약 15일에서 20일의 시간이 걸린 후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소금이 결정지에서 결정화되어 가라앉으면 그것을 모아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간수를 일부 뺀 후 제품화한다. 그리고 결정지에 남아 있는 물은 버린다.


지역에 따라 다른 염전, 좌측 상단 페루, 우측 상단 한국, 좌측 하단 프랑스, 우측 하단 중국.

중국산 천일염은 같은 서해 바닷물로 염전에서 만들지만, 염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중국의 염전은 한국이 1cm 내외인 것과는 달리 30cm 이상 1m가 넘는 곳도 있다. 그렇게 넓고 깊은 염전에 해수를 집어 놓고 증발을 기다린다. 몇 달이 지나 증발이 되어 소금이 만들어지면 그 소금을 수확한다. 해수를 여러 번 넣어서 소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한 후 수확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다단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수고도 줄일 수가 있다. 대량생산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소금을 만들 경우 소금 성분이 제각각이 되고, 이물질의 함량도 높아지는 문제도 생기고, 간수 성분이 포함됨으로 인해 맛 또한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식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후가공 과정을 거친 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세척, 이물질제거, 요오드 첨가 같은 후가공 공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소금제조업자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이런 후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제품화하여 출하한다. 그 들 중의 일부가 한국에 수입이 되어 소금품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천일염이라고 해도 만드는 방법이 다르면 다른 소금이 된다. 호주나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은 또 다르다. 이를 지역의 천일염은 완전 기계화가 되어 있다. 사막기후라는 천혜의 기후조건과 저렴하고 넓은 땅은 일찌감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수확한 소금은 씻어 고순도의 염화나트륨으로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한다. 한국에 수입이 되는 천일염은 대부분 호주와 멕시코산 천일염이다. 이들 소금은 저렴한 가격과 고순도로 인해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천일염이라는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소금도 이렇게 다른데,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일반 정제염,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심층수 소금과 같이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바닷물도 다르면 다른 소금이 된다, 같은 해양심층수로 만들어진 소금도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일반 정제염이 있고, 끓여 만든 자염도 있고, 천일염식으로 만들어진 소금도 있다. 나아가 순간 공중결정 제염기술을 이용하여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살린 소금도 있어서 소금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소금은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금 대부분은 그 제조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분 즉 칼슘, 칼륨, 마그네슘, 황, 등 수 많은 성분을 제거하면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미네랄 중에서 나트륨과 염소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든다. 그 이유는 이들 미네랄이 소금에 포함이 되면 소금 제조효율과 소금을 맛을 나쁘게 하기 때문이고, 고순도 염화나트륨이 필요한 화학공업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칼슘은 가계장치를 망가뜨리고, 마그네슘은 맛을 쓰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이른바 간수 빼기, 염전에서 잔여 농축수 버리기, 소금 만든 후 세척하기, 농축과정에서 칼슘 제거하기 등을 통해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소금의 품질 규격화, 품질 고급화라고 이름 붙이고 사용해 온 것이다. 소금은 서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주)오씨아드 이사〉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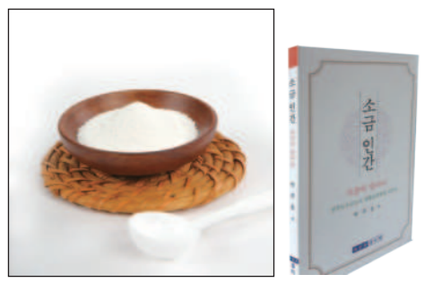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❸ 소확행 명상



▶한줄요약
삶 속에서 잠깐씩 갖는 명상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지름길이다.

‘화장실’ ‘지하철’…1분 마음쉼이 행복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자비심을 기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을 얻기 위함이다. 겨울날 거리에서 떨고 있는 걸인에게 적은 돈이라도 베푸는 까닭은 그에게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저절로 그러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는 나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남보다 잘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잡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잡념을 억지로 변화시키거나 잡념에 빠진 자신을 탓하지 말고, 소박하고 단출한 심정으로 그 잡념을 무심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 신체의 어떤 부위가 뻐근하게 느껴지면 ‘거기에 긴장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만이다. 아프면 아픈 대로 느끼면 된다. 또한 명상 중에 마음이 흔들려 주의가 흐트러지는 경험도 반드시 하게 된다. 이때도 자기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현실에서 일어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명상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의심을 만들지 말고 다시 주의를 집중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마음의 안정이든 종교적 체험이든 누구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명상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능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떠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쾌감이나 질투심이 적어지는 대신 스트레스와 시련에 대처하는 힘은 커진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실천할수록 그 변화의 폭은 점진적으로 넓어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바쁘거나 귀찮더라도, 1년에 1번 이상은 1주 이상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 명상은 일상이 될 수 있다. 세수할 때, 청소할 때,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운전할 때도 가능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 알아차림을 실천하면 언제나 유익하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효과가 좋다. 심호흡을 하다 보면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기분이 나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지나간 생각일 뿐이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찌할 수 없고, 어찌할 필요도 없다. 과거를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현재를 느끼기만 한다.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오늘 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내일의 밥은 굳이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명상에 대해 구구절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평소에 실제로 하고 있는 명상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인 법이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당장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명상법을 실천해보길 바란다.



거창한 명상법만 하지말고
삶 속서 틈틈이 마음 공부
화장실 · 톨게이트 명상 등
다양한 명상기회를 가져야

가장 먼저 소개할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미니 명상’ 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하는 명상 중에 하나가 ‘1분 그냥 있기 미니 명상’ 이다. 미니 명상은 선불교의 온전함에 마음챙김적 요소를 결합한 명상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춘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해본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들을 지켜본다. 현재 순간의 느낌에만 깨어 있는다. 뭔가를 알아차리려 노력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Non-doing’ 의 상태에 나를 맡겨버린다. 하루명상 앱에서 제공하는 1분, 2분, 3분짜리 다양한 미니 명상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톨게이트 명상’ 이다. 요즘은 하이패스가 일반화되어서 톨게이트에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톨게이트를 지날때마다 직원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실이 강북에 있기 때문에 강남에 업무가 있을 경우에 남산 1 · 3호터널을 자주 이용한다. 나는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수납하는 직원분에게 자애명상을 한다. 예전에 은행원 생활을 할 때 남부순환도로 톨게이트로 동전수납을 다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항상 자동차 매연에 노출되어 있다. 그분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자애 문구를 보낸다. 명찰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다. ‘000 님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혼자 조용히 되뇌면서 미소를 짓고 따스한 기운을 선물한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함께 비우는 ‘화장실 명상’ 이다. 절에서 화장실은 ‘근심일 내려 놓는 곳’ 이라는 뜻으로 해우소(解憂所)라 한다. 옛 스님들은 해우소를 오갈 때에도 마음챙김 수행을 입측오주(入厠五呪) 다섯 가지는 입측진언(入厠眞言), 세정진언(洗淨眞言), 세수진언(世水眞言), 거예진언(去穢眞言) 정신진언(淨身眞言) 임.

라는 게송과 주문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 화장실조차도 좋은 수행처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화장실을 오가지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다니고 있다. 어느 때 보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화장실 갈 때의 몸의 상태,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느껴지는 몸의 감각들, 일을 다 보고 난 후의 몸의 상태와 느낌, 씻을 때 감각, 거울이 비쳐진 모습 등을 집중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화장실은 나만의 소중한 명상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몸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명상을 습관화하려면 화장실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번째는 지구와 연결감을 느끼는 ‘발가락 명상’ 이다.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발가락에 주의를 두고 알아차림을 하는 명상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떤 발가락부터 움직이는지, 힘은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 발바닥에서 느끼는 무게감과 균형감 그리고 느낌은 어떠한지 등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두고 집중하여 느껴보자. 여유있게 걸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되면 빠르게 걸으면서 또는 뛰면서도 할 수 있다.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 같았던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느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오감을 깨울 수 있는 ‘세 숟가락 명상’ 이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명상이다. 하지만 계속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인 명상이다. 명상 방법 가운데 가장 즐겁고 뿌듯한 것이 바로 ‘먹기’ 명상이다. ‘먹방’ 이 괜히 생기고 괜히 인기를 끄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다. 가끔 간식도 먹는다. 식사는 혼자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할 때도 있다. 내가 정한 원칙 중 하나는 식사할 때 최소 세 번의 밥숟가락은 의도적으로 100번을 씹으며 알아차리는것이다. 일절 딴생각 없이 입안의 음식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되고 건강에도 좋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너무 배가 고프면 밥을 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입속에 욱여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두지 않으면 번번이 실패한다. 다만 세 숟가락 정도는 지인이나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도 표 안 나게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딱 세 숟가락만, 100번 씹는 것을 알아차려보자.

여섯 번째는 미소의 느낌으로 온전함에 깨어있는 ‘하트스마일명상’ 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수많은 사람과 만나 소통을 한다. 일과 관련된 미팅이나 거래는 대부분 피곤한 소통이다. 특히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 때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순간에 하트스마일명상을 활용하고 있다. 그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파워풀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 하트스마일명상 훈련에 익숙해지면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미소의 느낌을 간직할 수 있다. 마음 한쪽에 ‘저장소’ 가 마련돼 있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다. 불편한 상황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게 미소 지을 수는 없다. 자칫 상대방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마음으로 미소 짓고 가슴 한가운데로 따뜻한 미소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분출한다. 의도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미소를 지속적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몸으로 올라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아예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오히려 연민의 마음이 생겨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흠뻑 만끽할 수 있다. 나는 하트스마일명상을 응용한 3S 방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3S란 내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일단 멈추고(Stop), 미소 짓고(Smile), 바라보는(See) 방법이다. 미소를 짓고 그 느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미소의 느낌은 빠르고 즉각적이다.

마지막은 모든 존재와 연결감을 가질 수 있는 ‘가슴으로 감사하기 명상’ 이다. 감사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중 하나이다. 감사는 우리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준다.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살짝 미소 짓고, 가슴 한가운데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호흡한다. 먼저 가슴으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를 가슴으로 들이쉬고 가슴으로 내쉰다. 다음으로 최근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고마운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가슴으로 감사함을 들이쉬고 내쉰다.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고마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미소 짓고 호흡하면서 가슴으로 감사함을 느껴본다.

〈법구경〉 301편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명상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라는 말씀처럼, 독자분들도 일상 생활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갖고, 긍정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확행 명상 습관을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

여기 나와서 한마음 법을 배우고 가는 분들에게 바로 생각을 하시게끔 항상 얘길 해 드리지마는 오늘부터 더 확고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셨고 그 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그 방식에 의해서 관습이 돼서 영 놓으려야 놓을 수가 없이 찌들고 겹겹이 눌어붙은 거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눌어붙은 거를 다 제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와 같고 어떤 땐 나도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일어나요. 진짜 가슴에서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슬픔에서요. 너무, 나와 더불어 가엾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집이 때에 따라서는 이 병 저 병, 이 애고 저 애고를 가지고, 다섯 식구가 사는데 네 식구가 다 그러니 한 사람이 배겨 낼 수가 있나요, 또. 이런 것도 그렇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람은 이렇기도 해요. 전자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그 습과 착과 타신을 믿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못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줄창 얘기해 드리지만 그 애고라든가 그런 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살림살이, 가정, 내 삶,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유전성이나 영계성, 아까 얘기하던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그냥 입원을 하게 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노라고 그랬는데, 원주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처리해 준 것은 바로 그분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다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됐습니다. 그런 걸 다 없애고 보니까 자식들이 그때서야 시집 장가를 가는 데 걸림이 없었답니다. 그게 좀처럼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 영계성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고, 유전성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 뿌리와 자기 뿌리가 동일하게 엮어져 간다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듯 "저 전기가 가설이 돼 있는 데는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 즉 어머니다 아버지다, 자식이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인과를 가졌다면 선덕이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악행을 했다면 악행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 살림살이를 하면서, 즉 말하자면 지금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다면 지금이 과거죠? 그래서 현실로 무명을 쓰고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미래자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삼독 속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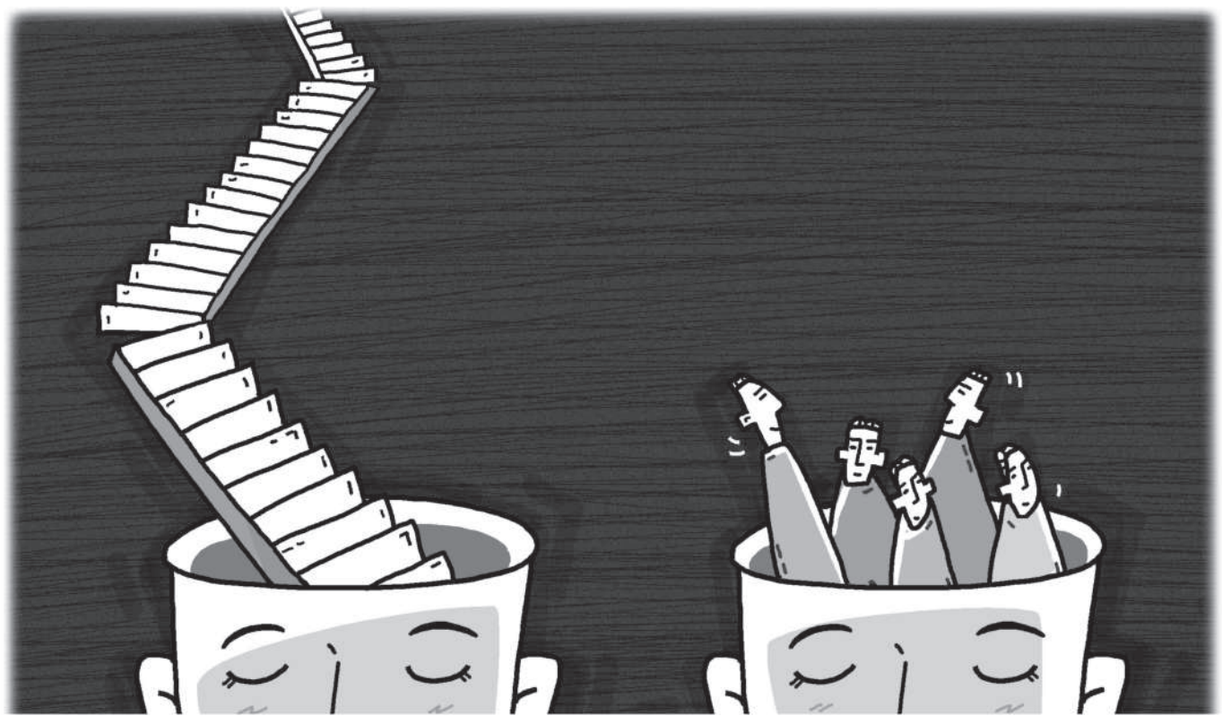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삼독을 제거하려면 여기에서 관법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관법을 하되 묘하게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이거야. 잘되고 못되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믿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믿는데 잘되든지 안되든지 내 자식이지, 잘되면 내 자식이고 못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부모지, 잘나면 내 부모고 못나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주인공이라는 것은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진화시켜 가면서 온 바로 선정이니까요. 선정의 근본이니까요. 그러니 잘되면 '주인공,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안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안돼?' 이러고 등한시하게 되죠. 그게 등한시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믿는 거를 잘되면 믿고 안되면 안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믿으면 잘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안되는데 그까짓 건 믿어 뭘 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안 되든 되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진화시키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장본인의 근본이 바로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자부처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운데에 중생이 있다. 이 내 몸속에 의식들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있죠? 내 마음이 부처라면 그 육신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딴 사람입니까, 어디? 그 한 사람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모든 의식들이 작용을 해 줘야 다니죠. 그러니 아주 심사숙고해서 진짜로 믿어야 한다.

첫째, 믿어야 한다. 둘째는 믿는 반면에 안 되는 거는 잘 생각을 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응? 과거로부터 이렇게 끌고 가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셋째는 모든 것이,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상대가 잘못해서 아주 원망스럽고 그렇더라도 상대를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받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깡통이기 때문에, 똑같은 넝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끔 자기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라. 악행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악행을 하면 악행이 오고 선행을 하면 선덕이 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그와 같이 콩은 콩끼리 만났고 팥은 팥끼리 만났기 때문에, 당하는 놈과 그렇게 하는 놈이 없으면 당하질 않게요? 그럼 고통이 없게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천지를 다 보세요.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신다면, 항상 내가 얘기하죠? 상점에 가도 끼리끼리 놔져 있고, 사람들을 봐도 끼리끼리 살고 있고, 하하하…. 산은 산대로고 물은 물대로란 말입니다. 천차만별이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다섯 식구가 살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살아도 자기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업보가 많은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왜 저놈은 저렇게 속만 썩이고, 저 애는 왜 저렇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애를 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과거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만난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박씨에서는 박이 꼭 나고 호박씨는 호박을 이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천체가 다 팔만대장경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다. 자기가 벌여 놓고 자기가 거둬야 합니다. 선행을 하면 선덕이 오는데, 선덕을 하고 가다가 보면 악행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 가르친 뒤에 끄트머리에 가서 "악과 선을 다 놔라." 이랬어요. 선덕을 하게 되면 악행도 하게 되고 악행을 하게 되면 선덕도 하게 되니까, 이 양면을 다 놔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길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길과 가는 길을 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셋째로, 자기가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묘미 있게,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이러란다고 그냥 고것만 또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서 마음을 발전을 시켜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스스로서 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넉넉하고…. 놓을 때도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그냥 한생각 내란다고 그냥 생각을 좋게 해서 놓는 거는 놓는데 그 시기가 익어지면, 익어지면 그대로 아주 생각이 상쾌하게 그냥, 그냥 저절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들이 그 관습에 젖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요것도 걸리고 조것도 걸리고 죄 걸립니다. 왜 걸리는 줄 아십니까? 모두 그 습들을 떼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 이사를 가려면 날을 봐야 간다는데….' 요런 관습이 있기 때문이고, '날짜를 봐야만 산소도 만진다더라.' 또 '날짜를 봐야만 장을 담

☞ 22면으로 계속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5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투고시기** : 연중 접수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4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선발인원** : 0명
●**공모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31일(목)**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상대가 잘못해서 원망스럽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라

☞ 21면에서 계속

근다더라.' 이런 게 많죠? 그냥 자기가 좋은 날, 노는 날, 하는 일이 없고….

그런데 뭘 하려면 그 생각부터 벌써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관습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나쁘고 좋은 걸 따지면서, 자기가 따지지 않아도 될 거를 따져 가지고 생각을 내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벌여 놓고선 '아이고! 그냥 하니까 일이 생기더라.' 이러는 겁니다, 이제. '예방을 안 하고 날짜를 보지 않고 그냥 했더니 일이 생기더라.' 이런 거는 자기 생각이 먼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생각을 잘하면 모든 거를 다 얻게 되고, 한생각을 아주 몽땅 쉬게 되면 역대의,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삼독을 그냥 제거시킨다 이겁니다. 내가 간절한 거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용건만 얘기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길 해도 그 도리를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얘기를 조은번 내놓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러는 겁니다. 벌써 그런 걸 보면, 몇 달 안 됐다고 그러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몇 달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죠. 뭐, 목이 아픈 거를 비켜 놓고, 나 피곤한 거 다 비켜 놓고 여러분이 애처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앉으나 서나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얘기를 하고, 앉으나 서나 행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태평하기가 그렇게 만사태평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응? 그렇게 시급한, 불덩이 속에서 타면서 돌아가는 거와 같은 살림살일 하면서, 말이 그렇지 다가오는 애고가 한 가지 뿐입니까, 어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런데 대신 밥을 먹어 줄 수가 없어요. 그 업보를 제거하려면, 본인이 밥을 먹어야만 배가 부르듯이 본인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알고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해야만이 그게 녹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애탄지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이 중이 먹기 위해섭니까, 살기 위해섭니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섭니까? 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잘 쓰고 살기 위해섭니까?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면 깁니다. 짧은 거는 이 무명이 짧다 이 소립니다. 이 고통 속에서 모두 허덕대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났다 하더라도 보는 놈과 당하는 놈이 마찬가집니다. 나만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나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처음 오신 분이 있건 줄창 오시던 분이 있건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서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나간다면 현실에, 바로 생활 속에 나옵니다. 그 발전하는 마음이 현실 속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마음, 마음!

옛날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신라 때 어떤 젊은 화랑 둘이 의형제를 맺어 가지고 절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지식과 학식을 풍부하게 배워서 아주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들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식과 학식은 충분하지만 정신계의 발전을 못 했으니까, 우리 둘이 결심을 하고 결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정신계의 발전을 시키지 못해서 방향을 모르니 할 수가 없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다니면서 또 들로 다니면서 좋은, 아주 능가할 수 있는 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자." 해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 어느 노스님 한 분이 밥을 바가지에다가 얻어서 자시고 계시더랍니다.

한 생각을 잘하면 모든 거를 얻게 되고
한 생각을 아주 몽땅 쉬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삼독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아이, 스님! 목도 마르실 텐데 물도 없이 이렇게 노인네가 잡수십니까?" 하니까, "젊은 자네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 물 떠다 주길 바라고." 허허, 그러더랍니다. 그래 한참 내려가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드리니까 "잘 먹었다." 하면서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더랍니다.

"지금은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다섯 가지 계법을 너희한테 내가 일러 줄 테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느니라. 이 마음속에, 이 지금 내면 속에 선을 세워 놓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딱 담고 너 아닌 너한테 맡겨라. 부모한테 효성하는 마음도 또 맡겨라. 네가 그 집 아들이 아니라 네가 그 집 아들이니라." 그렇게 해 놓고 "셋째는 친구들을 만나되 도의, 의리, 진정한 마음으로 사귀어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귈 수가 없다면 한데 뭉칠 수가 없다. 그리고 넷째는 화랑이니까 모으는 반면에 모든 일들을 하되 딴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사람이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 너그럽게, 모른다 할지라도 네 탓으로 생각하고, 모를 때네 모습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끌어 가거라. 다섯째는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짐승들을 죽이되, 말이나 돼지나 개나 닭이나 뭐, 이런 거는, 인간들 가깝게 있는 거는 죽이지 마라. 그리고 죽일 때에, 어쩔 수 없이 죽일 때는 너희가 먹을 만치만 죽여라. 그리고 살생을 하되 봄 여름은 지나서 살생을 해도 해라."

그렇게 다섯 가지를 줬답니다. 그랬는데 그 두 화랑은 나중에 다시 여쭤 봤더랍니다. "네 가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다섯째는 어떻게 살생을 하되 먹을 만치만 하고, 살생을 하되 여름과 봄은 제해 놓고 하라 합니까?" 이러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과 봄은 새끼들을 낳아서 모두 기르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 청심하고 살생을 하되 새끼들 없을 때, 새끼들 없는 걸 먹을 만치만…."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계를 주면서 하시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너희들의 그릇을 봐서 계를 주는 거지, 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라. 시대에 따라 맞춰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줄 알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두 화랑은 거기에서 조금도 스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실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아주 여러모로 다양하게 기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직하란다고 끼었다가 빼서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넓고 지혜롭게, 이익하게만 거짓말하는 거는 이익한 지혜지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네 가정에서 모든 지혜와 그 진실된 믿음, 그리고 요량, 그리고 남을 증오 안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남도, 모르는 사람도 내 모습으로 알고, 악한 사람도 내가 전자에 살 때 악했던 그 모습으로 본다면 모두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아마 다 화목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국가 질서도 그렇고 사회 질서도 그렇고 아마 세계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평등하게. 그렇게만 하신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남한테 가서 폭력을 하려야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쁜 일을 하려야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쁜 일도 당하지 않을 거고 폭력을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일체 천차만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있다가 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여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를 이끌어 가는 나 자체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선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가 죽을 데로 끌고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을 데로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진짜로 믿어야 마음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이룩할 수 있고, 세세생생에 이룩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밝아서 자식들의 뿌리에도 밝게 불을 켜 줄 수가 있고, 부모 조상들에게도 불을 켤 수 있어서 이 세상에 다시 천도가 돼서 나올 때도 조금도 어김없이 선행과 그 모든 보살행을 그대로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해서 돌아가신 부모들도 둘 아니게 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세상에 출현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스님한테다가 곧장 대놓고 이것저것 얘기 안 해서 어쩌나!' 이러지 마시고 이 스님은…. 이 삼독을 면하면 말입니다, 삼세의 부처님의 마음이 한마음이 됩니다. 한마음으로 모아서 됩니다. 그러니 한마음인데 어찌 여러분의 마음이 개별적인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같이 마음을 전달하면서, 같이 찰나찰나 전달을 하며 돌아가는데 어찌 이게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묘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라도 아주 생생히 진짜로 믿고 얘기할 데는 거깁니다, 거기! 닿다가도 얘기할 수 있고. 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응? 빽이 여기 있고, 항상 부처님 마음에다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선 주인공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일체제불의 그 한마음이 동시에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동시에 나투어 줘.

동시에 나투어 줄 때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 하나의 보살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보살로 화해서, 아픈 사람은 약사가 돼서 한마음이 돼 주고 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 독성이나 산신이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또 죽는데 좋은 데로 못 가면 거기다가 고하고, 그냥 '너밖엔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삼독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놓으면 지장의 마음이 거기 한마음이 돼 주고 이러니까 뭐, 궁색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궁색할 게 하나도 없죠, 모두가.

그렇게 해도 죽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법에서 10년 징역을 받았든 20년 징역을 받았든 일단 받은 거는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럭하다가도 진실하게 잘, 어디에도 모범적이고 어디에도 잘할 수 있다면 그 징역 20년 받았던 게 15년으로도 될 수 있고 10년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전자의 묵은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거야. 유전성을 다 없애고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다 그냥 몽땅, 삼독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마음으로다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히 믿고 진실히, '저 스님,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허허, '내가 스님을 꼭 만나서 얘길 안 해도 스님의 마음,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내 한마음으로 응해 주시니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신임하고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님한테 말을 해야 갈 수 있다 하는 건,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얘길 해야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기르려면 그렇게 실험을 해 봐야 되는 거다 이 소립니다. 육신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길지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하하,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이, 이 하늘이 깨지고 뭐, 지붕이 갈라지고 온통 자식이 그냥 죽고 남편이 급사를 하고 그런다 해도 능히 눈깜짝 안 한다면, 그거는 다 헛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또. 허허.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항상 밝아서 걸림이 없이 물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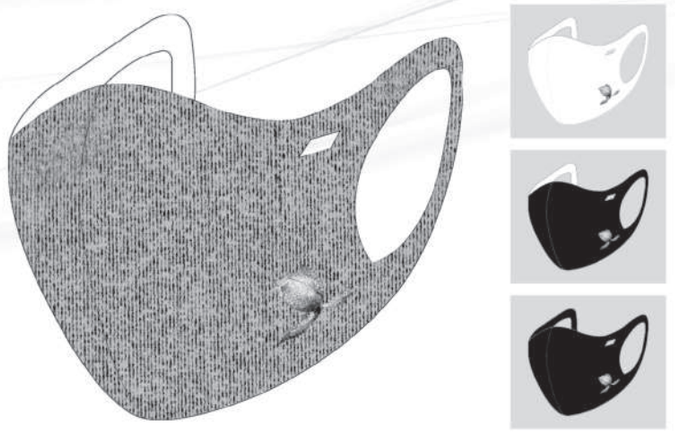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4월 2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 현불 논단 |

'禪藝一致' 종정예하 환영합니다

〈선예일치〉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3월 30일 종정 추대 법회 봉행
성파 대종사 15대 종정에 추대
理事 겸비, 조계종도 존경 받아

콩 재배 · 야생화 단지 조성 등
백장선사 선농일치 청규 계승해

선, 예술로 승화… 작품들 감동
불교문화지평 한 단계 상승하고
국민 교화 힘쓰는 종정 되시길

3월 30일 조계사에서 중봉성파 대종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하는 대법회가 봉행된다. 모든 불자들과 한마음으로 종정 예하의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宗統)을 승계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를 갖는다. 불조의 혜명을 밝히고, 불도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향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불교가 나아갈 지혜의 등불을 밝혀줘야 한다.

성파 종정예하는 21세에 출가하여 일찍이 선지식으로부터 선정 · 계율 · 경전을 배우고 단련하였고, 종단의 행정 소임도 두루 거쳤다. 참선과 교학,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종도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투철한 출가 수행자이다.

'심우도' 에서 마지막 수행의 궁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잣거리로 나가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종정예하는 통도사 서운암에 중국 선종의 대웅(大雄), 백장 선사의 선농일치의 자립 불교정신을 계승하여 사찰에서 콩을 재배하여 된장을 담구고, 감나무와 차나무를 심는 생산불교를 실천했다. 4만 평을 가멸차게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매년 들꽃축제를 개최하여 대중을 사찰로 끌어 모았다.

21세기는 문화 예술의 시대이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문화국가론을 주장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와 사상을 지닌 우리 불교가 나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문화 예술분야이며, 호국불교의 전통이다.

종정예하는 선(禪)수행을 예술로 승화시켜 전문적인 종교 예술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예술은 창조가 생명이고, 종교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다. 예술은 인간 문화의 총아로써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준다. 현대불교가 나아갈 길은 전통을 지키며 새롭게 나아가는 창신(創新)이 대세이다.

1991년부터 20여 년 동안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해인사 목판 팔만대장경을 도자기로 새롭게 16만도자대장경을 조성하였고, 장경각을 세워 봉안하였다. 나전 옻칠로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울산 태화강 반구대의 암각화를 장경각의 앞마당에 수중(水中)으로 재현해 놓았다.

절에 닥나무를 재배하여 세계 최대의 100m 한지를 제작해 절에 보관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국가문화재가 된다고 한다. 천연염색과 한지에 쪽물을 들여 감지(柑紙)를 만들어 고려 사경(寫經)의 전통을 되살렸고 옻칠을 재료로 고려불화를 재생시켰다.

종정예하는 38년 동안 성파시조문학상을 개최해 오고 있다. 시조가 우리민족의 전통문학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매년 개최한다고 한다. 문학 · 역사 · 철학, 인문학에서 문학이 으뜸이고, 문학 가운데에서도 시가 으뜸이다.

예술은 이름다움과 새로움을 창조하는 인간 문화의 꽃이다. 인간은 예술행위를 함으로써 영원으로 통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전통문화와 예술적인 조예를 지닌 종정 예하를 모시게 된 것을 거듭 축하하고, 선정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우리 불교문화 예술의 지평을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국민을 교화하며 국가의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를 바꾸는 취침 전 15분

꽃들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하고, 책상에게도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편안한 밤이 되라고 인사를 보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잠들기 전 10분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린 후에도, 잠들기 전에 잡아놓은 방향으로 마음이 진행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지요. 이 원리를 보아 근본적으로 마음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이 눈을 떴을 때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의 마음은 전체 마음의 활동 면에서 본다면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마음의 활동면에서 보면 5%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인간의 전체 마음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단 운전을 시켜 놓으면 어디까지나 무작정 같은 방향으로 창조활동을 계속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의 마음' 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의 마음' 으로 가는 것이 전체의 5%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습관의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 역할을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잠들기 전에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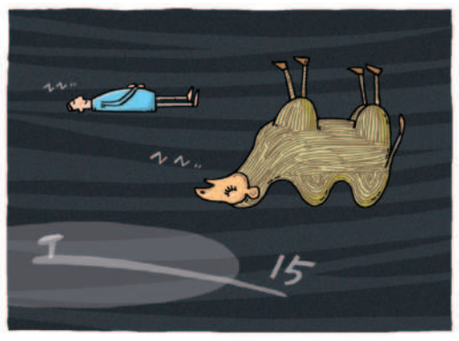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수면 중에도 계속되고 있는 마음의 창조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소아과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밤중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지배함으로서 건강이나 성격을 개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있었던 짜증스러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불만과 화나는 일을 잠자리까지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등에 짐을 진채 잠자는 낙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낮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은 평화로운 잠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방해하며 성격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낙타가 아니니까 짐을 진채 쉬게 해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면 지금까지 외부를 향해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마음이 반대로 내부를 향해서만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운전수가 잠들어 있는 자동차처럼 마음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향해 돌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들기 15분전에 마음을 파괴적인 방향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화, 갈망, 시기, 질투, 분노 같은 부정적인 채널에서 평화, 기쁨, 즐거움, 연민, 자비와 같은 긍정적인 채널로 바꾸어야 합니다. 취침 전에 합장하고 10분 정도 자신이 작성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긍정적인 채널로 돌려놓는다면 어제의 나는 없고, 오늘 새로운 '나' 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연대 · 나눔으로 '종전' 이끌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 참사나 부당한 권력의 피해와 고통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손을 내밀어온 한국 불교계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지지와 연대에 앞장서고 있다.

본지는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상월결사,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난민 구호를 위한 긴급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인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기금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한마음 한뜻이 모인 것이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소중하다.

앞서 불교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중단을 촉구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계종은 3월 2일 입장문을 내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상월결사는 3월 23일,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순례' 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9.6km를 행선한 사부대중 500여 명은 "함께하는 인류애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위로 하겠다"고 발원했다.

모금 캠페인은 전쟁으로 삶이 파괴돼 버린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캠페인은 8월까지 진행되며 기금은 난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류, 의약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저 멀리 아시아의 한 국가, 불교계에서 전하는 지지와 연대의 발걸음이 한줄기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불자들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 정신이 종전을 이끌 수 있다.

일제 역사 지우는 '미남불' 환지본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며, 기존 청와대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사를 다룬 한국정치박물관부터 시민공원 등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이러한 청와대에는 불교계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청와대 '미남불' 로 일컫어지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이다. 뛰어난 조형미로 '미남' 불로 회자되는 이 불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로운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지어지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됐다.

미남불이 현재 청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제에 의한 불교문화재 수탈의 증거이며, 청와대가 일본 총독관저 잔재인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신라사적고〉가 발견되며 경주 이거사지가 이 미남불의 본래자리인 것까지 확인됐다. 남은 것은 환지본처.

문화재는 제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본연의 가치를 되찾는다. 문화재청에서도 이거사지 발굴 및 부지 매입 등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이 미남불 환지본처의 시기가 아닐까.

청와대 용산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1948년 일제의 조선총독 관저에 그대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경무대로 이름 붙여 사용된 역사를 지우는 길인 것이다. 청와대에 위치해 그동안 경주 이거사지로 돌아오지 못한 미남불의 환지본처는 일제 역사를 지우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양산포교당

주지 도 훈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장삼동길 13-1 전화 055-386-7527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우현 광우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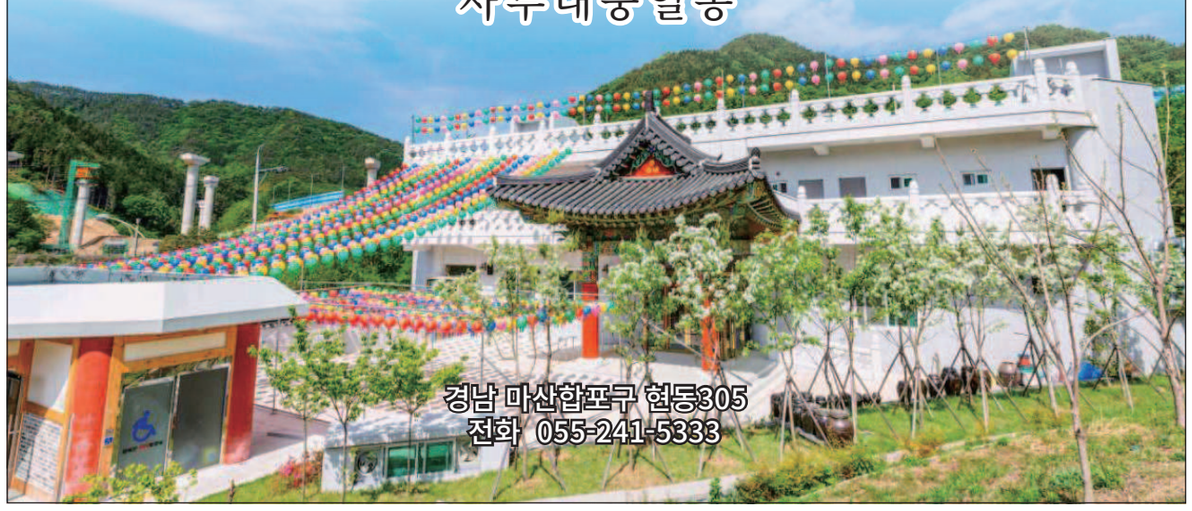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전화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 남 사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 13 핸드폰 010-7450-3340 전화 052-211-3340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감 사 성정(수덕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